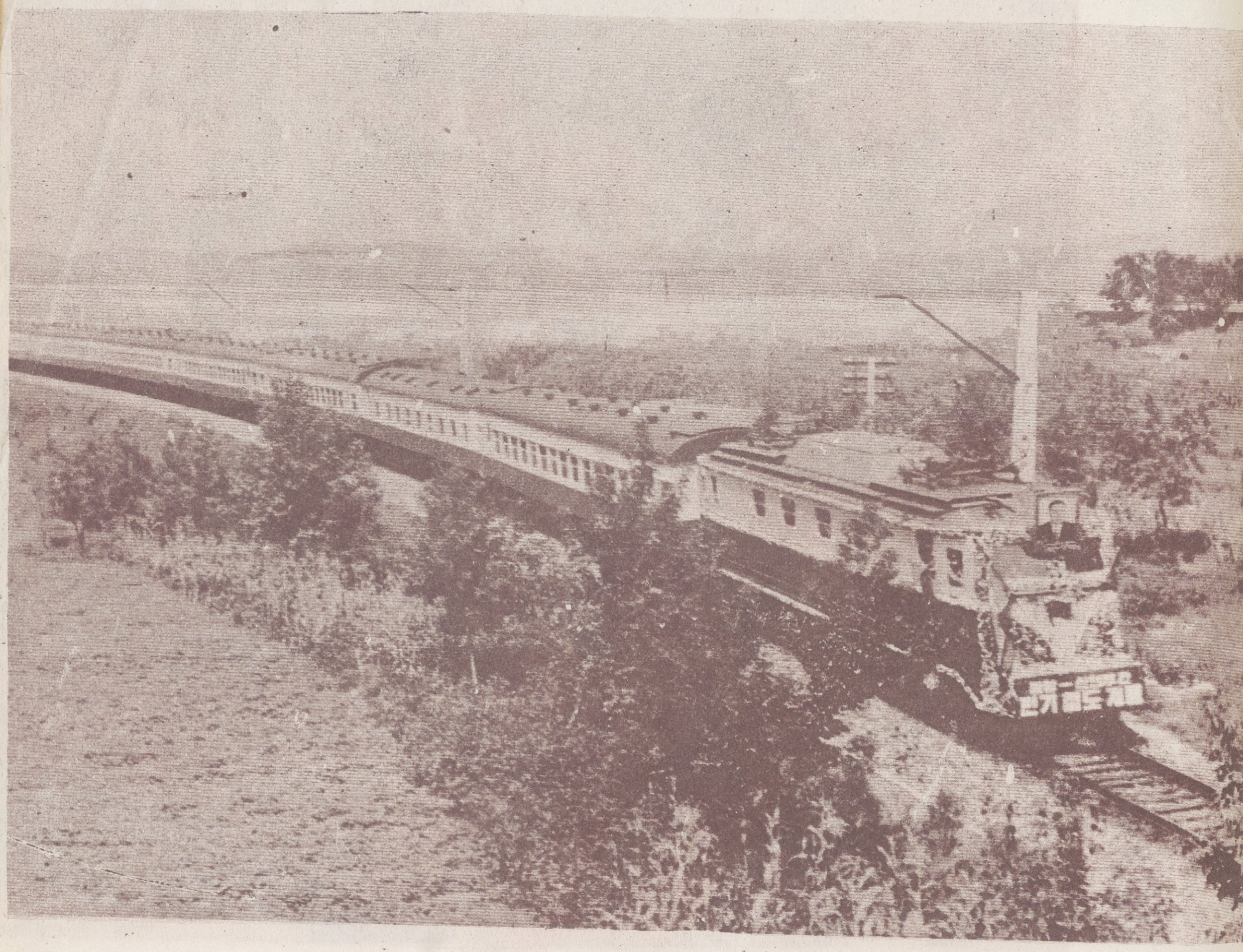


청년생활

10

1964



《전기 렬차 달린다》

윤 영경 촬영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964. 10



차 례



과거를 잊지 말며 미래를 사랑하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내다 보는 것은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현재는 과거의 련속이요 오늘은 래일에로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되며 승리와 실패의 교훈을 찾으며 력사와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예견한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 보면서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가지며 신념과 정열과 투지를 기르며 생활과 투쟁의 보람을 느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오늘의 혁명은 그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은 정체를 모르고 미래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기 마련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마땅히 과거의 혁명 력사를 통하여 그의 전통을 체득하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하며, 미래를 내다 보면서 혁명 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며 혁명 승리의 가장 가까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잊지 말며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라 할 것이다.

청년들은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새 세대이며 조국의 미래 주인공이며 혁명 위업의 계승자이다. 청년들은 조국의 과거와 혁명의 력사를 알고 그의 업적과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광명한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력사적 사명이다.

우리 조국의 과거는 인민의 피와 눈물로 엮어진 고난의 력사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인민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가지지 못한 탓으로 그들은 빈궁과 무권리에 허덕이고 천대와 멸시에 몸부림쳤다.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일제의 감옥과 교수대에서 희생 당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천재가 파묻히고 짓밟혔던가!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여야 한다. 오늘의 처지가 자유로울수록 생활이 행복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모들이 겪은 고난의 력사를 어느 한 때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그런 력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 제도를 증오하며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 혁명의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사수하여야 한다.

고난에 찬 우리 조국의 력사는 또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빛나고 있다.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민족의 수난기마다 언제나 애국의 기치, 자유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었다. 온 나라가 하나의 감옥으로 변하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암담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15여 성상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그처럼 간고하고 장기적인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력사에 가장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이 뿌리에서, 이 전통을 계승하여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이 창건되였으며 그의 세련된 령도 밑에 조선 혁명이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과 투쟁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본받아 그들처럼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아야 한다.

세계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는 우여곡절과 풍파로 가득차 있다.

공산주의 운동은 그의 발생 첫 시기부터 부르죠아지들과 그에 복무하는 각종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 기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의 위대한 학설인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없애 버리려고 그에 대한 발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공산주의 운동 대렬을 분렬시키며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날뛰였다. 그러나 모든 기회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휘황한 빛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그 진리의 힘 앞에서 분쇄되였다. 공산주의 운동은 원수들과의 투쟁 속에서 승리하고 전진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는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발전하고 풍부화되였다.

청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공산주의 운동에 대두하여 세계 혁명과 각국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수정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과거를 잊지 않는 동시에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여야 한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혁명 전사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미래를 사랑할 줄 모르며 리상과 포부가 없는 사람은 혁명가—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새것 즉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낡은 것을 용감하게 타파하고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조선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후대들에게 행복한 새 생활을 안겨 주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오늘과 같은 좋은 세상을 보지 못 하고 희생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는 공산주의에 속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이러한 투쟁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비록 안락한 생활은 누리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생애는 얼마나 빛나고 고상하고 보람찬 것인가!

자기 자신의 발전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투쟁을 회피하고 낡은 세력에 아부하며 굴종하는 것은 타락한 시정배의 추악한 인생관이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청년들 속에 기회주의의 독소를 퍼뜨려 그들을 사상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수정주의에 물든 일부 나라 청년들은 공산주의 미래도 혁명도 잊어 버리고 오늘의 순간적인 향락만 추구하며 더욱더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행복에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앞날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불타야 하며 혁명 선배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자기의 두 손으로 더욱 행복한 미래를 개척하며 건설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이 땅 우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 나가며 자기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이 항상 혁명적 랑만으로 충만되고 청춘의 힘과 정열과 기세가 약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여! 어느 한시도 과거를 잊지 말자, 남조선 형제들을 잊지 말자, 세계 피압박 인민들을 잊지 말자, 그리고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자, 공산주의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투쟁하자!

공산주의 수양

혁명적 지조

한 춘

사람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뜻이 옳은 뜻이라면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인민을 위하고 나라를 받드는 것일진대 더욱 그러하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옳은 뜻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과 곤난 앞에서도 변할 줄 모르는 강의한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존경하여 왔다. 반면에 곤난과 회유에 굴복하여 자기의 뜻을 버리고 절개를 지키지 못한 자들을 두고는 《허파에 쉬 쓴 놈》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소하고 경멸하였다.

지조란 자기가 지닌 사회적 신념을 굽히지 아니 하는 사람들의 높은 정신과 품성을 말한다. 제 육신보다 사상을 귀중히 여기며 목숨을 바쳐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조가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애국적, 민족적 지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일생을 바쳐 싸우는 과학적, 예술적 지조를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고상하게 평가하고 있다.

× ×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동서 고금의 력사에는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지조를 굽히지 않고 곳곳이 살며 싸운 사람들이 허다하다.

《내 차라리 계림(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될 수 없다. 내 차라리 신라의 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을 받을 수 없다…나는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신라의 신하이다》라고 일본 왕을 질책하면서 목숨을 빼앗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지조를 지킨 신라의 박 제상, 달콤한 말로 변절을 요구하는 원쑤 앞에서 《내 네 놈의 간사한 꾀에 속아서 살기만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저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네 놈의 덕으로 구구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소리 치며 태연하게 죽음의 길을 택한 임진 조국 전쟁 당시의 동래 부사 김 상헌, 74 세의 고령으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대마도에 있는 놈들의 감옥에 붙잡혀 가서 갖은 고문과 박해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북두성 저 쪽 조국을 바라 보니
백수로 잡힌 몸 통분도 하여라
만 번 죽은들 적의 부귀 탐할소냐
오로지 일생을 정의 위해 싸우노라》고 웨치며 장렬히 최후를 마친 의병장 최 익현, …이들의 애국적 지조는 그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 주는 것인가!

력사에는 또한 갖은 박해와 탄압과 희생 앞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운 량심적인 학자들과 작가들이 무수하다.

탁월한 지리 학자 고산자 김 정호는 27 년이란 긴 세월을 봉건 통치 계급의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풍찬로숙하면서 수천, 수만 리의 산과 들을 도보로 걸으며 끝끝내 《대동여 지도》를 완성하였고 화가 오원 장 승업은 자기의 예술적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왕의 온갖 회유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그리라고 명령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지조가 굳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카토릭 교회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과학의 승리를 높이 웨친 죠르다느 부르노는 원쑤들의 종교 재판정에서 《…진정으로 두려워 할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고 웨치며 태연히 교회가 지핀 불'길 속에 몸을 태웠고, 지동설의 진리를 엄숙히 선포한 갈릴레이 갈릴레오도 온갖 탄압과 박해를 무릅쓰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지구는 돌고 있다!》는 진리를 고수하였다.

× ×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루를 살아도 량심적으로 사는 것을 영예스럽게 여기여 왔다. 우리들의 량심이란 곧 조국 해방을 위한 애국적 량심, 로동 계급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불요불굴의 투지,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성과 강의성, 모든 곤난을 극복하는 인내성, 영웅성 등의 집중적 표현으로 되는바 바로 이것을 혁명적 량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조선 사람의 량심을 수호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을 피로써 고수하여야 한다.》

인류 력사는 불요불굴의 투지와 애국적 지조를 보여 준 수 많은 위훈들을 낳았으나 그의 참된 구감은 오직 로동 계급, 공산주의적 혁명 투사들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날의 수 많은 우국지사들 역시 자기의 한 목숨보다 나라를 위하고 절개를 더 귀중히 여기였으나 그것은 아직 확고한 계급적인 자각에 기초하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계급의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 하였었다. 오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전 인류를 해방하고 인류의 지상 락원—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위한 지조, 혁명 투쟁을 통하여 더욱 굳건해지고 투쟁으로써 고수해 온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지조만이 가장 참되고 굳센 것이다.

《공산주의 유령》이 배회하던 100여 년 전부터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지구 상의 4 분의 1에서 실생활에 구현되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적 원쑤들의 요새를 치는 돌격전에서, 기울어져 가는 혁명의 운명을 건지는 간고한 혈전에서, 그리고 혁명 전우의 생명과 조직의 비밀을 수호하는 고문대와 교수대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 혁명적 지조를 지켜 왔던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에서 발휘한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지조는 우리들의 위대한 구감으로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의 산 모범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 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 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장에 불멸의 여운을 남기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박 길송 동지, 적들에게 체포되여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조직의 비밀을 사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다른 동지들의 《죄행》까지 책임지고 수십 명의 동지들을 석방시킨 후 장렬하게 희생된 림 춘익 동지, 청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조국의 광복과 공산주의 위업에 바친 황 정해, 김 충진, 리 동화, 최 희숙 동지들…실로 이들의 혁명적 지조는 우리들의 생활과 투쟁의 산 모범으로서 사람들이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자기 일생을 어떻게 마쳐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지조—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 락관주의와 결부되여 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 터 오는 새벽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최후 승리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하여 그 어떤 철창도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도 태연하게 웃음으로 맞는다.

희랍의 공산당원 코스타스 짜코는 사형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웨쳤다. 《서러워 하지 말

라, 동지들이여!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용사의 죽음에는 눈물이 아니라 노래를 보내야 한다.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죽는다.》

중국의 혁명가 엽 정은 감옥에서 원쑤들의 손에 학살되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다.

《신성한 출입문 철쇄로 잠겨지고
굴욕의 개구멍만 휑하니 터져 있어
야수는 발악하며 웨치거니.
〈기여 나오라, 자유를 줄 페다.〉라고

내 비록 자유를 갈망하나
비렬하게 네 놈들께 구걸은 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어찌 개구멍을
기여 나갈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미래의 그 어느 날
지하에 타오르는 열화 속에
이 생지옥과 더불어 타 없어지리라
이것은 나의 최대의 념원
나는 기어이 열화와 피끓는 속에서 영생하리라!

히틀러 파시즘의 감옥 속에서 쏘련의 나어린 공청원 울료그 끄세보이는 자기의 최후를 앞두고 지난날의 공청 생활을 총화 지으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맛조차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행복스럽다. 벌레처럼 기여 다니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내 귀여운 매야!〉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믿음과 동지들의 신임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죽음은 나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깨끗할 것이다. 나는 어엿하게 죽는다》라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지조란 바로 이러하다. 그것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온갖 지조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지조이다.

× ×

그러나 세상에는 자기의 부귀 영화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 또한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보전하려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초보적인 지조마저 헌 신짝처럼 집어 던진 그러한 추물들이 있다. 자기 일신의 안일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침략자들을 맞아 들이고 송두리 채 나라를 팔아 먹은 을사 오적들, 한때는 소위 민족 운동의 지도자들로 자처해 나섰다가 일단 원쑤들의 공세와 탄압이 가해지자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배반하고 변절의 길에 들어선 자들, 이 모든 반역의 무리들은 얼마나 비루하고 추악한가!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 내에도 혁명이 간고할 때마다 이러한 타락 분자와 변절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자기 일신의 안일과 생명을 위하여 혁명적 지조를 버리고 원쑤와 결탁하는 길에 굴러 떨어졌다.

력사는 제 2 국제당에 숨어 들었던 온갖 기회주의 분자들, 뜨로쯔끼, 부하린 분자들, 우리 나라에서의 반당 반 혁명 종파 분자들인 박 헌영, 리 승엽, 최 창익 도당들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변절자들과 타락 분자들을 알고 있다. 인간 쓰레기인 이 혁명의 변절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원쑤들과 공공연히 야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을 포기하고 남이야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살려는 데서 일찌기 레닌이 《오, 부르죠아에 대한 세련된 하인 행위로다. 오, 자본가들 앞에 엎디여서 기여 가며 그들의 신발을 핥아 주는 문명한 하인 행위로다.》라고 규탄한 바로 그대로 책동하고 있다.

× ×

혁명적 지조는 우선 혁명 임무에 충실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 혁명 정신에서 표현된다.

혁명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이다. 계급적 원쑤들은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가혹한 박해와 탄압을 가하며 때로는 교활한 회유 기만으로써 집요하게 달려든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그 어떠한 간고한 시련 앞에서도 굴함 없이 자기의 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혁명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계급적 원쑤들은 로동 계급으로부터 그들의 사상적 무기인 맑스-레닌주의를 빼앗아 내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과 비방 중상을 다한다. 적들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은 혁명 승리의 기본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말고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적 지조는 또한 혁명 조직에 대한 충실성에서도 표현된다.

조직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혁명의 승패는 혁명 조직이 어떻게 결속되여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조직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에 무한히 충실하다.

조직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충실성은 혁명의 령도 핵심과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충성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훌륭한 령도 핵심과 수령을 가지지 못하고 인민들이 그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지 못할 때 그 나라 혁명은 필경 혼란과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그러기에 혁명의 령도 핵심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를 목숨으로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응당한 의무이며 혁명적 지조의 훌륭한 구현으로 된다.

불굴의 항일 투사 권 영벽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 일성 장군이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그를 받들며 철석 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 권 영벽 동지는 혁명 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심장 속에 아로새긴 이 맹세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으며 적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는 순간까지도 그 맹세에 충실함으로써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였다.

혁명적 지조는 또한 혁명적 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고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데서 표현된다.

동일한 사상, 공통된 투쟁 목적에 기초하여 맺어진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동지애는 호상 믿고 배려하며 혁명적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고상한 동지적 관계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만들며 혁명 승리의 위력한 원천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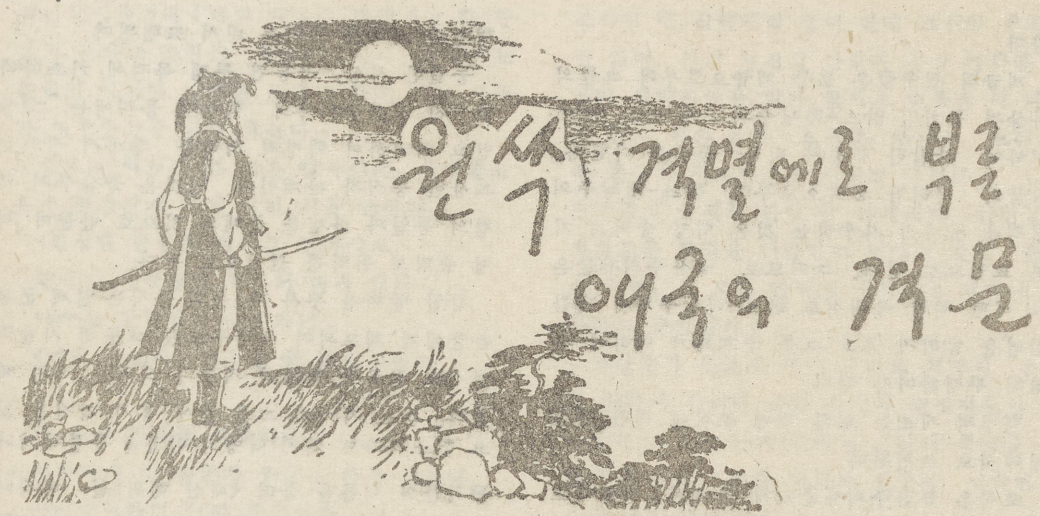
항일 빨찌산 투사 마 동희 동지는 일제 군경 놈들에게 체포되여 극악무도한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혁명적 지조와 의리를 지켜 싸웠다. 그는 자기가 고문 끝에 혹시 정신을 잃고 헛소리라도 쳐서 혁명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동지들의 이름을 불러 《배신 행위》를 하지나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일 념려하여 자신의 혀를 깨물어 끊기까지 하였다.

혁명 동지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곧 혁명에 대한 배신과 변절 행위로 된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 선배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고 이 땅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이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며 풍파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견결한 투사로 자신을 수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의 사상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할 때 옳은 뜻을 세우고 자기의 지조를 꿋꿋이 지켜 낼 수 있으며 당의 사상 의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조선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 나갈 수 있다. 청년들은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동시에 혁명의 실천 투쟁 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살며 싸우는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견결한 혁명 투사가 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 나라의 애국 선렬들이 남겨 놓은 세 편의 격문을 싣는다.
인민들을 원수 격멸에로 뜨겁게 부른 이 격문들에는 그 구절 구절마다에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불 타는 항거의 정신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백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 나 끝까지 싸우려는 애국의 충성과 용감한 기백이 얼마나 힘 있게 울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이 격문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힘 있게 고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심장마다에 꺼질 줄 모르는 애국의 불씨로 되여 세차게 타 번질 것이다.

의병이여, 일어 나라, 왜적을 쳐부시자

조 헌

임진년 6월 12일에 전 제독관 은천 조 헌은 팔도의 문무 동료들과 지방 향촌의 여러 동지들과 부모 형제, 영웅 호걸, 승속 남녀들에게 삼가 고하노라.

천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러기에 만물이 제각기 자리 잡고 안정되여 살기를 원한다.

사람은 물론 귀신까지도 모두가 증오하는 것은 원쑤라, 맹세코 우리의 고향 땅에서 원쑤와 함께 살지는 못 하리라!

들리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분노에 질리고 증오에 떨린다. 바로 이 원쑤들은 의리도 정의도 모르는 것들이라, 악한 짐승보다도 더 잔인한 무리로구나!

상관 죽이기를 개 잡듯이 하였나니 그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고 백성 죽이기를 풀 베듯 하였나니 그 원한은 일국에 넘쳤다. 모지고 독한 형벌 그칠 줄이 없었나니 악한 자의 뒤끝이 있을 리가 없어라.

어리석은 한착 (寒浞)(주1)이 제 무덤을 제가 파듯, 지각 없는 역량 (逆亮)(주2)이 전쟁만 일삼듯 감언리설로 꾀게를 꾸며 남의 나라를 속이려고 들며니 남몰래 도적 떼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이 땅에 기여 들었구나!

태평 세월이 오래여서 원수를 막아낼 준비가 없었으나 사나운 발'굽 아래 이렇게 짓밟힐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라.

애석케도 문경 새재의 요새가 무너지자 어쩌랴, 군왕의 수레는 북으로 옮겨 갔다.

통분하구나, 이 나라 강토 우에 원수의 칼날이 번득이다니!…교활한 원수들이 칼춤을 추면서 제 마음 대로 기여 든 적은 이 나라 력사에서 있어 보지 못 했노라.

남의 부모를 죽이고 남의 남편을 죽이는 죄, 그 죄만 하여도 응당 천벌을 받으리니, 온 겨레의 목숨을 빼앗고 온 겨레의 재산을 불사르려 하니 그 악한 원쑤가 어찌 망하지 않을소냐!

날마다 백성들의 원한이 쌓여 가고 달마다 의사들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신자의 도리에 어찌 도피함을 생각하랴! 승냥이보다도 더 포악한 원수를 앞에서…

인간의 가죽을 썼다면 인간의 마음이 있으련만 례의와 렴치는 찾아 볼 수 없구나. 정의를 위하여 정의의 전쟁에 일떠섰나니 제아무리 포악한들 두려울 것이 있으랴!

싸움을 일삼는 자는 싸움으로 망하나니 진(秦)나라 백 기(白起)가 사형을 당하듯이.

그러기에 온 세상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쑤들에게 죽음을 주라고 떠웨친다. 어찌 그뿐이랴, 산천초목도 치를 떨며 일떠서고 지하의 귀신들까지도 이 놈들 없어져라고 저주를 보낸다.

생각컨대 병사들을 동원하여 적을 치려면 군법을 세워 군법 대로 할 것이요, 태평 무사하게 좋은 날, 좋은 때만 앉아서 기다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금관자, 옥관자(주 3)를 단 무리들은 거듭 내리는 나라의 명령을 헛되이만 하느냐?

령남과 호남을 지키던 자들은 조국의 운명을 내 몰라라 하였고 이 나라 수도를 지키던 자들도 고스란히 원수들에게 내여 맡기고 말았다.

삼도 지방에서 제가끔 틀고 앉아 선봉 대렬을 구원할 줄 몰랐고 싸우다가 한 번 실패하고는 다시 일어 설 줄을 몰랐구나!

원수를 끌어 들인 그들의 죄악이 중하거늘 어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책임을 맡기리요.

북쪽 저 묘당(주 4)은 멀고도 멀구나, 전방의 뜻 아닌 소식에 가슴 아파하였으리.

원쑤들의 포위망은 겹겹이 싸여 이 나라 백성들은 살'길을 잃었으니 이렇듯 원쑤들의 침해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필경에는 이 나라가 피바다로 변하고 말리라, 고상한 례절과 찬란한 문화로 빛나던 이 나라의 강산이 영원히 섬나라 원쑤들의 발'굽 아래 짓밟힌단 말이냐?

아—조선이여!…

조국을 보위하려는 애국적인 백성이 있거니 어찌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영웅들이 없을소냐, 때마침 의병을 불러 일으키는 격서가 내리자 과연 그 한 줄의 글'발이 우국지사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 놓았구나!

적의 력량을 타산하여 전략, 전술에 능란한 고 동래(주 5)가 일떠섰고 아군의 사기를 돋구어 대렬 편성에 우수한 김 수원(주 6)이 일떠섰다.

곽 장군(주 7)은 령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그의 기세 산악을 진동하고 김 제독(주 8)은 호남에서 군중을 선동하여 그의 위력 활화산의 화염처럼 타오른다.

이 모두 시국을 바로 잡으려는 영웅일시 분명하다. 될연코 군중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리로다.

맹호 같은 우리 부대 모여 들 멘 지 쥐무리 같은 원쑤들은 소멸되리니 하물며 적개심에 불타 오르는 이 지방 용사들의 기세를 돋구어만 준다면 어찌 천추에 이름을 남길 위훈을 세우지 않겠는가!

바라노니 우리의 한 몸을 아끼지 말고 기여코 종국의 승리를 쟁취하자! 진실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한다면 온 나라 백성들도 우리를 믿고 따라 오리라.…

뜻을 굳게 먹는다면 백성들이 감동되고 하자고만 한다면 천지만물도 도우리라. 어이타, 포악무도한 원수로 하여금 문명한 이 강토에 오래도록 발을 붙이게 한단 말가!

원 충갑(주 9)은 장기를 휘두르며 치악산 전투에서 거란병을 쳐부시였고 김 윤후는 큰 화살을 벌리여 쥐고 황산성 싸움에서 몽고병을 막아 내였도다.

혹은 선비였고 혹은 승려였거니 무사도 아니였고 이름난 장수도 아니였건만 오직 일편 단심 조국을 위한 충성으로 천추만대에 공명을 남겼도다.

보아라, 이 나라 강토에는 걸출한 인재들이 대를 이어 났나니 고려의 말기에 빈번한 해적의 침습이 있었으나 선렬들의 용맹으로 모조리 물리쳤고 을묘년 여름에 기여 든 해적들도

용사들의 위훈으로 하여 단숨에 진압되였더니라, 그 뒤 백여 년 간에 나라가 무사하여 무력을 쉬였으나 어찌 충신 의사들의 가슴 속에 백만 대병이 없었을소냐!

혹은 백 걸음 밖에서도 백발 백중 과녁을 맞히는 활 잘 쏘는 명수도 있었고 혹은 높은 벼랑을 달리면서 맨 손으로 호랑이를 움켜 잡는 힘센 력사도 있었건만 문(文)만을 숭상하고 무(武)를 억눌러 차별시 하였나니 이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크나 큰 잘 못이였다.

나라와 가정은 한 몸이나 다름 없건만 신하의 직분을 다하는 충신을 보기가 어렵구나.

환난을 당하여 후환을 남길소냐! 력사를 더듬어 전감을 징계하라!

진실로 혼천동지(주 10) 온 누리를 뒤흔들 용사가 있을진대 어이타 전투복을 떨쳐 입고 장검을 휘두르며 원쑤 격멸에로 일떠설 결의가 없을소냐!

삼도의 력량을 단합시켜 조국의 위험을 구원할 날이 바로 이 때가 아니냐? 일생의 지혜를 다 바쳐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싸울 날이 바로 이 날이로다. 원하노니 여러 동지들이여, 천추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씩씩하고 용감한 무사들을 서로 모아 위태로운 이 나라의 운명을 회복하자!

활을 버티여라, 화살을 메워라!
먼저 적의 괴수의 멱통을 겨누어라!
창을 휘두르라, 방패를 쳐들어라!
련속 적의 군마의 발목을 무찌르라!

이러면이야 높뜰은 기에 질려 도주하고 우리네 백성들도 사방에서 모여 들리라.

밭갈이하던 자는 때 늦었다 한탄 말고 농사'일을 보살피며 목수 일을 하던 자는 재'더미를 파 헤치고 옛집을 일구어라!

령남, 호남 일대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인들은 사방의 물화를 류통시키라!…

이리 하여 위정자의 안목을 새로 넓혀 나라에 도움될 좋은 계책 들이면 지난날의 결함이 제거되고 새 세대의 광명이 빛나리라.

그러기에 오늘의 이 한 전투가 후손만대에 무상의 행복을 끼쳐 주는 그러한 영광의 전투임을 알리로다.

이 격문 받아 읽는 자들은 모두들 조국을 위하여 원쑤를 쳐물리칠 대책을 집분 상의하여 각자가 갖은 심력을 다할지라!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들이고 용력을 가진 자는 용력을 바치여라!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바치고 로력을 가진 자는 대렬을 보충하라!

즉시로 각 지방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조직을 정비하라! 다시는 때를 늦추지 말고 이 호소에 다같이 호응하라! 그리하여 남방의 우리 부대와 련계를 지으면서 협공작전할 대전투를 준비하자!

만일에 적을 치는 데 합력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저 선산 군수, 김해 군수와 같은 무리들로서 원쑤를 도와 적에게 넘어 간 자로 인정하리니 이 전란이 끝나는 날에는 그들의 죄행을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

마을마다 주민들을 동원하여 원근 사방에 척후를 배치하라! 원쑤들의 교활한 행동은 미리 예견키 어려우니 적의 병력이 적을 때는 정명을 매복시켜 불의에 사로잡고 적의 병력이 많을 때는 여러 고을의 힘을 합쳐 공격하라!

적은 리득을 탐내다가 우리의 정예 부대를 훼손시키지 말며 류언비어에 동요하다가 우리의 사기를 저상시키지 말라!

맹세코 섬 나라 원쑤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고 기약코 우리의 조국 강토를 완전히 회복하자!

이러면이야 그 얼마나 좋을소냐! 그 얼마나 다행이랴!

그러지 않고 만일 때를 기다리며 상부의 명령만 기다리다가는 도리여 원쑤들의 침습만 받으리니 필경에는 청주의 여러 영웅들이 앉아서 참화를 당한 것처럼 될가봐 걱정이다. 바로 이 점이 조 헌의 피어린 심정으로써 소리 질러 호소하는 바이니 기회를 잃지 말고 조국의 원쑤를 끝까지 소멸하자!…

※ 조 헌(趙 憲)은 임진 조국 전쟁 때 왜적이 쳐들어 오자 충청도 지방에서 의병 부대를 조직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금산(錦山)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애국적인 의병장이다.

(주 1) 중국 하(夏) 나라 사람, 한은 그를 봉한 나라이고 착은 그의 이름임, 본래 유궁 후예의 신하로 후예를 죽이고 그 자리를 앗았다가 뒤에 하 나라 소강(少康)의 손에 죽었다 함

(주 2) 금(金) 나라 해릉주(海陵主) 량(亮)을 말함. 송 나라를 침략하려고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그 부하들에게 죽었다 함

(주 3) 옛날 봉건 사회에서 벼슬아치들이 금이나 옥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던 망건 고리

(주 4) 《의정부》를 달리하는 말 (주 5) 고 동래(高 東萊)—임진 조국 전쟁 때의 의병장 고 경명(高 敬命)

(주 6) 김 수원(金 水原)—임진 조국 전쟁 시기의 의병장 김 천일 (金 千鎰)

(주 7) 임진 조국 전쟁 시기의 의병장 곽 재우(郭 再祐)

※ (주 8) 김 면 (金沔)을 의미하는 듯

※ (주 9) 원 충갑(元 冲甲)—14 세기 큰 강원도 원주 사람, 몽고 장수의 합단 (哈丹) 이 침략하여 왔을 때 용맹을 떨쳐 적을 섬멸하였고 거란군도 물리쳐 공훈이 컸다.

※ (주 10) 혼천 동지—하늘 땅을 뒤흔든다는 말

령남에 호소한다

김 덕 령

충용 익호 장군(忠勇 翼虎 將軍) 김 덕령은 령남에 있는 각 고을 여러 분들에게 삼가 고한다. 아—자연의 재해도 끝날 때가 있거니 국가의 운명인들 항상 비운에만 처해 있으랴! 정의를 지킨다면 비록 위험에 빠졌더라도 필경에는 구원되고, 순리를 거역한다면 비록 한 때는 강하더라도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이니 이는 론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정세 변천의 필연성이다. 그러므로 적은 군대로도 능히 많은 도적 무리들을 쳐 이길 수 있었고 적은 힘으로도 능히 큰 반란을 꺾을 수 있었다. 지난날의 력사가 바로 이러하거니 오늘인들 옛날과 무엇이 다르랴! 간악한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 든 지 벌써 두 해째라, 흉악한 기세는 더욱 극심하고 료원의 형세와 같은 화는 걷잡기 어렵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가의 운명은 계란을 포갠 것처럼 위태롭게 되고 불쌍한 백성들은 원쑤들의 발'굽에 짓밟히게 되였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했거니 하늘인들 천벌을 가하지 않겠는가!

덕령은 한 개 미천한 사람으로 산간 벽촌에서 출생하여 목적한 뜻은 학문에 있었고 본래 직업은 활 쏘기, 말 타기가 아니였다. 그런데 도 근간에 헛 명성을 얻어 사령관 막하에서 일을 보게 되였다. 이 때에 어머니는 이미 늙었는데 형은 마침 적과 싸워 전사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군대 내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한동안 군대를 따라 다녔지만 부득이 돌아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로는 나라의 치욕을 생각하여 한밤'중에 칼을 어루만졌으며 아래로는 형의 원수를 원통하게 여겨 매번 밥그릇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가화가 미진하여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초종 범절을 대강 마친 다음에 나라에 몸을 바칠 수 있게 되였다.…

아—조국이 나에게 란을 구제할 것을 맡기였는데 이 나라의 백성된 자로 감히 헌신하여 싸울 것을 사양하겠는가? 내가 들건대 의리를 배반하고 목숨을 아끼려 하면 용맹스러운 장사도 겁쟁이로 전락되고 충성을 다하여 몸을 바치려는 자는 비록 약한 사내라도 장수로 된다고 한다. 나라를 섬기고 겨레를 위하여 죽는 의리는 즉히 용기로 되는 것이요, 원쑤를 치고 반역자를 물리치는 것은 즉히 기개로 되는 것이니 어찌 구구한 혈기와 용기로만 이 도적 무리들을 제압해 내겠는가! 그러므로 로둔한 자신을 채찍질하여 선봉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

격문을 원근에 전달하여 용감한 병사들을 소집하였더니 룡처럼 날쌔고 범처럼 억센 장수들과 적장의 목을 단참에 베고 적군의 기빨을 걷어 쥘 만 한 날랜 용사들이 모두 량식을 싸 가지고 종군할 것을 청원하였으며 물불'속이라도 뛰여 들기를 서슴지 않았다. 팔뚝을 휘두르며 통분함을 금치 못 하노니 전일에 세번이나 패전한 것을 수치로 생각하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운을 북돋우노니 앞으로 아홉 번 쳐들어 가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저 잔명을 보존하고 있는 침략자들을 기한을 정해 놓고 꺼꾸러뜨릴 수 있다. 이 달 23일로 좋은 날을 택하여 군대를 동쪽으로 진군하려는바 중앙에 황색 기치를 좌우로 벌려 세우고 검고 붉은 기빨을 앞뒤 쪽에 쭉 늘어 서게 하여 기병들을 바람과 같이 달리게 하고 긴 창을 번개 같이 휘두르게 하라! 무기는 정예

롭고 군량은 풍족하며 목적은 정당하고 사기는 충천하니 이로써 적을 제압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들을 당하겠는가!

병법에 이르기를 《우리의 력량을 잘 타산하고 적들의 력량을 잘 파악한다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저 침략자 무리들은 천 리를 넘어 와서 몇 해 지나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가 맞지 않고 수토(水土)에 병이 들어 패기는 이미 평양성 싸움에서 꺾어졌고 간담은 행주성 싸움에서 떨어졌으니 옛날에 정병이라고 일컫던 놈들이 지금은 보잘것 없는 무리들로 되였다. 그 중에는 저희들 괴수들의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끌려 온 놈들도 많은바 놈들로서도 어찌 부모 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원한은 이미 극도에 달하였고 탄식 소리는 바야흐로 높아 가고 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 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니 가마 속에 든 물'고기가 그 얼마나 견디겠느냐! 놈들의 종자까지 없애 치울 날이 바로 이 때이다. 어찌 멸적의 소탕전을 늦출 수 있겠는가?

아—원쑤들이 기여 든 이후 오직 호남 일대만이 홀로 참혹한 화를 입지 않고 있으나 7 도는 거의 참화를 당했는바 그 중에서도 령남이 받은 화는 다른 도보다 몇갑절 혹심하다. 문무 관료들, 늙은이, 남자, 녀자 할 것 없이 횡액으로 무고한 변란을 당한 사람이 한이 있겠는가? 부모가 죽어 자식은 고아로 되였으며 남편이 죽어 안해는 과부로 되였다. 거리와 마을들은 화염에 싸였고 백성들은 모두 제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 초가집들은 불에 타서 보이는 것은 재'더미 뿐인데 특히 락동강의 동쪽과 진주의 남쪽은 사람 사는 집이라고 찾아보기 힘들다.

추위와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여 쓰러진 자들이 길을 덮었고 원통한 통곡 소리는 하늘에 사무쳐 천만 가지 저주로운 원한은 차마 다 말할 수 없다. 이로 보건대 파리한 아이들과 수척한 부인들까지도 부지깽이를 들고 싸움에 나설 판인데 어찌 건장한 사내들이 칼을 뽑아 들지 않고 편안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 때야말로 바로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울 날이요, 영웅 호걸들이 나라의 치욕을 씻을 때다. 모두다 나라와 백성의 원쑤를 놓치지 말고 놈들을 천참 만륙해서 없애 버려야 한다. 더구나 놈들은 장차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재물을 닥치는 대로 로략질하고 있다. 이 기회에 빨리 소멸하지 않는다면 전일과 같은 화가 언제 다시 미칠른지 모른다.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기는 놓칠 수 없고 일은 두 번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결심하라! 동포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본래 절개와 의리를 존중했으니 이제 원쑤를 토벌하려는 데 호응하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각 고을에서 그 충후하고 근면한 자들을 선발하여 인원수에 따라 각각 책임자를 정하고 용감한 청년들을 소집하여 군량과 마초를 준비하며, 혹은 로인들과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로서는 식량을 운반하게 할 것이다.

원하건대 여러 분들은 각각 자신이 스스로 로력하여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도록 하라.

※ 김 덕령 (金德齡)은 임진 조국 전쟁 때 25 세의 청년으로서 담양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용감히 싸우다가 리 몽학의 역모 사건 (반란 사건) 때 터무니 없는 혐의로 통치배들의 혹독한 악형을 받다가 애석하게 희생되었다.

8 도 여러 고을에 호소한다

류 린 석

아—우리 8 도 동포들아! 이 나라를 어찌 저 원쑤들에게 내맡기여 암흑의 생지옥으로 화하게 하겠는가? …

우리 나라는 건국 초기로부터 옛날의 어진 법을 본받아 나라가 위급할 때는 반드시 달려가 구제하는 충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임진 전쟁에는 의로운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이 일어 났고 병자년(주 1)에도 절의를 지켜 죽은 신하 또한 적지 않았다.

최근 서양 오랑캐에 의하여 중국 대륙이 전란 속에 빠진 후에도 우리 나라는 당당한 자주 국가로서 다행히 평화를 유지하여 왔다. 나라의 면적은 동방의 적은 지역에 불과하지마는 어둔 곳에 해'빛처럼 한 줄기 광명을 보전하여 왔다.

아—통분하도다! 외국과 통상한다는 그들의 모략이 사실은 망국의 장본으로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원쑤의 피 묻은 발을 이 나라에 들여 놓게 한 것은 소위 세도'집 놈들이며 몸을 희생하면서도 의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다만 변슬하지 않은 인민들 뿐이다. 왜적들의 음흉한 모략은 추측할 수가 없고 조상으로부터 전해 온 례의는 보전하기 어렵게 되였다. 그러므로 비록 초야에 묻힌 이 하찮은 사람도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간절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갑오년(주 2) 6월 20일 밤을 당하여 3천 리 우리 조선이 옛 모습을 잃게 되였구나! …

아—저 일본의 배신 행동은 처음부터 더 말할 나위도 없었지마는 국내 반역 도당들로 말하면 그들의 육체와 모발이 과연 누구의 덕택으로 자랐는가? 원통하고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리오! 기막힌 변고를 당하니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꺼지는듯 하여 우리의 고유한 도덕과 륜리와 문화를 영영 보전할 수 없게 되였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금수처럼 만들었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며 부모로부터 얻은 모발을 풀 베듯 깎아 버렸으니 이것이 무슨 괴변인가? 서울의 늙은이들은 옛날의 문물을 뿌리는구나, 군신 (君臣), 부자(父子)도 다 같이 싸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천지 귀신인들 어찌 도와 줄 때가 없겠느냐, 충신이 아니 되면 오랑캐가 되기를 어찌 모면하며 나라 망치는 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국토를 보전하겠는가?

우리 8 도의 충의스러운 인민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배양을 받은 처지에 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우며 멸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 사세가 위급한 막바지에 닥쳤으니 용기가 백 배로 더 솟아 나야 한다. 불공대천의 원쑤이니 복수할 마음은 더욱 사무치며 력사에 드문 위급한 때이니 살상의 재화는 면하기 어렵다. 오랑캐로 변해서 어찌 세상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공사를 물론하고 온전히 보전하여 나갈 가망이 없으며 화복을 가릴 것 없이 나라 위해 《죽을 사(死)》자 한 글'자를 지켜야 한다. 피를 마시며 맹세했으니 성패와 리해는 따질 바가 아니며 좋은 일을 위해 이처럼 떨쳐 나섰으니 경중과 대소를 어찌 론하랴! 군중들의 심리가 다 같이 쏠리니 신명도 도와 줄 것이며 나라의 운수가 다시 돌아 오니 세상의 평화를 보게 될 것이다. 《정의 앞에는 대항할 적이 없다》는 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 군사들에게 인민이 살해되는 것을 어찌 앉아서 보겠느냐! 감히 이처럼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8 도에 그 뜻을 포고한다.

우로는 정부 관리들부터 아래로는 인민 대중에 이르기까지 이 포고를 듣는다면 그 누구인들 비분강개한 마음이 없겠는가?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실로 위급한 때이다. 여러 분들은 각자 무기를 잡고 끓는 물과 단 불에 뛰여 드는 용감성을 발휘해서 나라의 중흥을 기약하고 태양이 다시 밝아 옴을 보게 하라! 이 공로는 다만 한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로 만고의 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소문을 보낸 후에도 만약 호응하지 않고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곧 이는 역적의 도당으로 규정될 것이며 단연코 의병을 보내서 그런 자부터 먼저 처단할 것이다. 여러 분들은 마땅히 각각 명심하고 뒤'날에 후회됨이 없게 하라! 깊은 정성을 다해서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도록 호소한다.

※류 린석(1842—1915)은 리조 말기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의병장이며 애국 시인이다.

그는 1895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손수 의병 부대를 조직한 이래 국내의 각지로 이동하면서 침략자들을 무찔렀으며 원쑤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애국적 정열 넘쳐 나는 수 많은 시, 창의문, 격문들을 써서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 (주 1) 병자년—여기에서는 1636—1637년의 녀진족의 침습을 말한 것임

※ (주 2) 갑오년—1894년에 일어 난 갑오 농민 전쟁을 가리킨 것임

전투 실화



전사의 맹세

김 수현

1952년 9월 20일.

민청원 리 용운 동무가 속한 중대에는 적들이 차지한 339 고지를 습격할 새로운 전투 명령이 하달되였다.

전투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며칠 후 구분대에서는 당 지도 기관 결산 선거가 있을 것이였다. 그래서 매개 전투원들은 이 뜻 깊은 당 지도 기관 결산 선거를 새로운 전투 승리로써 맞이하려고 별러 오던 참이였다.

민청원들 중에서는 이 번 습격 전투에서 위훈을 세우고 영예로운 로동당원의 대렬에 들어 설 것을 결의해 나서는 동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리 용운 동무는 혼자 생각하군 하였다.

(나에게도 과연 당원이 될 자격이 있을가?)

그의 눈앞에는 수 많은 로동당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사람들, 언제나 혁명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의 온갖 아름다운 자질과 품성을 한 몸에 지닌 사람들…용운이는 그러한 로동당원들을 무수히 보아 왔었다. 용운이는 어쩐지 자기는 아직 당원이 될 자격과 수양이 부족되는듯이만 생각하였다.

이윽고 9월 23일 습격의 길을 떠나는 날은 왔었다.

그 날 저녁 정치 부중대장은 적들의 포탄에 허리가 뭉청 부러진 소나무 그루 밑에 앉아 있는 용운이를 보았다. 그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가?)

잠시 후 용운이는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 때 그의 얼굴엔 그 어떤 귀중한 것을 만지는듯 한 엄숙한 기색이 떠돌고 있었다.

정치 부중대장은 가벼운 미소를 띄우며 그의 곁에 다가 가 섰다.

그가 골똘히 눈 주고 있는 흰 종이 우에는 또박또박 정성 들여 박아 쓴 글이 눈에 띄웠다.

《…입당 청원서…》

정치 부중대장은 한 전사의 마음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을 보았다.

입당 청원서—이것은 단순한 한 장의 글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가 당의 위대한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칠 그러한 결의가 가장 함축되고 소박한 말로 씌여 있다. 이것은 그가 당의 일정한 조직 내에서 충실히 일할데 대한 가장 숭고한 맹세를 적은 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한 장의 입당 청원서를 쓸 때 자기의 수양 정도와 자질을 반성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자기의 과거 생활을 총화도 해 보고 앞날을 생각도 하면서 깊은 사색에 모대기며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 부중대장은 이렇게 당을 뜨거이 생각하면서 입당 청원서를 써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러한 훌륭한 전사들은 전투에서도 언제나 남달리 용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전사를 불렀다.

《용운 동무!》

《네?!》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용운이는 몹시 당황해 하였다.

정치 부중대장은 자리에서 일어 서려는 그의 어깨를 가벼이 누르며 함께 앉았다.

《나는 동무의 입당 청원서를 보았소. 나는 지금의 동무에게서 정말이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보았소》

《부중대장 동무, 그런데 저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적습니다.》

전사는 부끄러운듯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계급적 원쑤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소. 우리 당에는 바로 동무와 같은 사람이 요구되오. 동무는 철이 들기 전부터 머슴살이를 하였소. 그러니 해방 전에야 어떻게 배울 수 있었겠소. 그러나 지식 수준은 앞으로도 배우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소. 문제는 '그것보다도 항일 빨찌산들처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치겠다는 그 혁명 정신이 귀중한 게요.》

그 밖에도 정치 부중대장 동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세세히 들려 주었다.…바로 그 날 저녁이였다. 그들의 은폐호에는 과거 항일 빨찌산 투사이던 군사 부사단장 동지가 내려 오셨다.

전사들은 장구한 기간 항일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로 투사를 둘러 싸고 앉았다.

군사 부사단장은 이 날 저녁 전사들에게 김 일성 원수께서 령도하신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가 왜놈들이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건설하던 경박호 수력 발전소를 습격할 때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때 전투는 매우 가렬하였소…매복선을 돌파하는 어려운 전투에서 수 많은 동지들이 자기의 몸으로 아군의 위기를 구출하였소. 리신금 동무도 위험한 사태에서 적들을 맞받아 나가 사격하면서 자기의 목숨으로 동지들을 엄호하여 구원하였소.…》

로 투사의 말'소리는 은폐호 안에 도란도란 울려 퍼졌다. 전사들의 눈앞에서는 불소나기를 뚫으며 적들을 쓸어 눕히는 선렬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불타 올랐고 별 같은 눈들에는 새로운 결의들이 빛났다.

즉석에서 투사 동지를 모시고 중대 민청 회의가 열렸다. 중대 민청 위원장인 장 한섭 동무가 토론한데 뒤'이어 세 번째만에 리 용운 동무가 일어 섰다.



키가 작고 몸'집이 오동통한 용운 동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떼였다.

《동무들!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에 입당 청원서를 내였습니다. 나는 입당 청원서를 내면서 결심한 그 대로 항일 빨찌산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서슴없이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소박한 결의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각 19시, 드디여 출발 명령은 내렸다.

은페호 바람'벽에서 모래알 굴러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고요한 밤이였다.

전사들은 1 렬 종대로 지뢰원과 철조망을 헤치며 조심히 전진해 나갔다. 그들은 세 시간이나 걸려서야 적진 200 메터 앞까지 이르러 은밀히 돌격선을 차지하였다.

밤은 지리하게 흘렀다. 드디여 0시 30분! 적들이 차지한 고지는 모조리 불바다 속에 잠겼다. 아군 포병들의 일제 사격이 시작된 것이였다.

아군의 포사격이 적 진지 종심으로 이전하자 소대장 동무의 저력 있는 구령이 내렸다.

《소대 돌격 앞으로!》

전사들은 쏜살같이 고지 정점을 향하여 달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적들의 중기, 경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게다가 조명 지뢰까지 터져서 주위는 대낮처럼 환하였다. 전사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리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다. 바로 이 때 리 용운 동무가 소대장에게로 기여 왔다.

《소대장 동무! 제가 저 화점들을 까부시겠습니다.》

용운 동무의 눈에서는 불이 활활 이는듯 하였다.

바로 이 순간 소대장은 왼팔을 적탄에 맞았다.

《개자식들!》 용운 동무는 이렇게 웨치며 앞으로 뛰여 나갔다. 소대장이 미처 만류할 새도 없었다.

용운 동무가 나가는 40 메터 앞에서 적의 화점은 불을 뿜고 있었다. 그는 날쌔게 배낭을 벗어 철조망에 얹은 다음 그것을 후닥닥 뛰여 넘었다. 그리고는 불을 토하는 두 개의 경기 좌지에 연거퍼 수류탄을 뿌려 허공 날려 보냈다.

그러나 아직도 적 중기 화점에서만은 계속 불'줄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또 하나의 수류탄을 뿌렸다. 그런데 그것은 변바로 명중되지 못 하였다.

전우들은 로출된 땅 우에 엎드린 채 일지 못 하고 있었다. 구분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용운 동무에게는 이미 수류탄이 없었다. 시간은 한 초, 한 초 안타까이 흘렀다. 그는 생각하였다.

(이런 때 내가 만일 로동당원들이라면…)

번개 같이 입당 청원서의 글'발이 떠올랐다.

(그렇다! 항일 빨찌산들처럼, 로동당원들처럼 조직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자!)

그는 힘차게 땅을 차고 일어 나 원쑤의 화점으로 내달았다. 련이어 《만세!》 소리가 온 고지를 진감하였다…

고지는 승리적으로 점령되였다. 적들이 둥지를 틀었던 339 고지에는 470 개나 되는 원쑤놈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은페호들에서 생포한 놈들만 하여도 300 놈은 더 되였다.

이 빛나는 전투 승리 속에는 자기의 입당 청원서에 씌여진 대로 싸운 민청원 리 용운 동무의 불멸의 공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 날 밤 승리한 고지 우에서 한 민청원의 가장 고귀한 맹세가 담겨져 있는 그 입당 청원서를 재삼재삼 읽는 정치 부중대장의 눈은 감격으로 젖어 있었다.

새 전기로의 탄생



민청 제 5 차 대회가 있은 후 강선 산업 건설 사업소 사로청원들은 대회에서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연단에 나선 사로청 위원장 박 종철 동무가 긴급하게 제기된 과업을 사로청원들에게 전하였다.

《…얼마 전까지만도 년산 24만 톤의 강재 밖에 생산 못 하던 강선 제강소 앞에는 앞으로 1~2 년 내에 40만 톤의 강재를 생산해야 할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였습니다. 그리 하여 강철 직장에 7 호, 8 호, 9 호 전기로를 새로 더 건설하기로 되였는데 이것을 우리 사업소가 담당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사로청원들 앞에는 어렵고도 영예로운 새 전투 임무가 제기되였습니다.…》

자기네 기업소 앞에 영예로운 새 임무가 맡겨졌다는것을 알게 된 사로청원들은 너도 나도 전기로 건설에 참가하겠다고 나섰다.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 수행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는 드높았다.

사업소 사로청 위원회는 그들로 《전기로 건설 청년 돌격대》를 조직하고 7 호 전기로 건설을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사랑하는 조국의 건설장이며 공장들에 한 톤의 강재라도 더 많이 보내려는 그들 건설자들 속에서는 련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피여 나기 시작하였다.

…며칠 전부터인지 돌격대원 김 남규, 최 봉식 동무들은 작업 총화가 끝나기 바쁘게 어디론지 살아지군 하였다. 그런데 그 때부터 아직 기초도 채 되지 않은 전기로 건설장 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내화 벽돌이 무지로 쌓이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밤 땀을 뻘뻘 흘리며 내화 벽돌을 한 짐씩 짊어 지고 오던 두 동무는 소대장과 마주치게 되였다.

소대장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나는 또 웬 내화 벽돌을 가져 오는가 했더니 동무들이 그랬었구만. 참 사람들도 어련히 때가 되면 실어다 주지 않을라구, 우물에서 숭늉을 찾겠군. 하루 종일 땅을 파고 피곤할텐데 어서 들어 가라구…》

《네, 이제 한 번만 더 가져 오면 다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작업장을 돌아 보던 소대장은 내화 벽돌이 마치 로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가 가니 그 안에서 말 소리가 들려 오지 않는가, 귀를 기울이니 김 남규, 최 봉식 동무들이

《이 번엔 그 옆에 벽돌을 달라구… 다음에는 저 쪽 것을》하고 정신 없이 내화 벽돌을 쌓고

있었다.

《아니 이건 또 뭐요?》

하고 소대장이 묻자 두 돌격대원은 장난질하다가 들키운 아이들처럼 어색한 웃음을 띄며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좀 련습을 해 보려구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무들은 능숙한 축로공이 아니요. 이제 로체를 세우고도 넉넉히 로벽을 쌓을 수 있지 않소. 빨리 쉬라구요…》

사실 그 때까지도 이 두 축로공의 가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움트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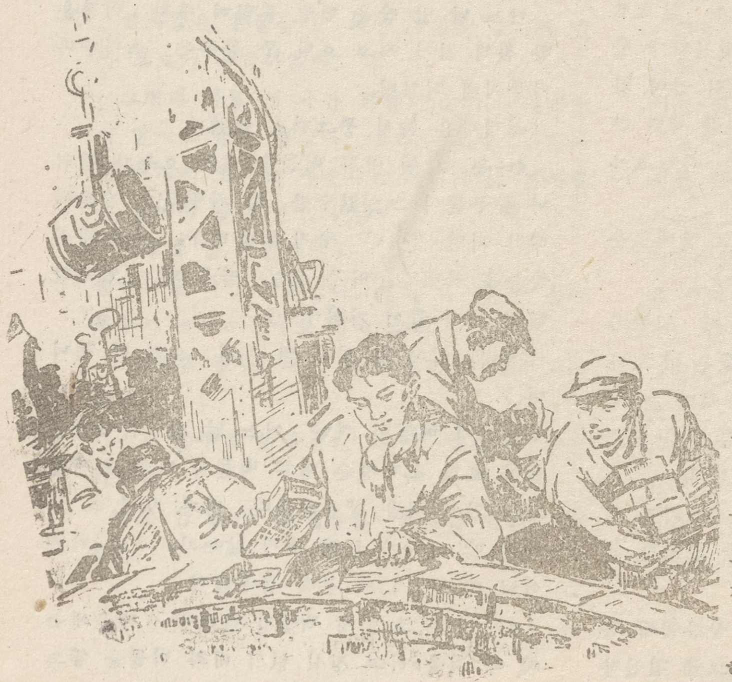
…로벽 쌓는 일은 다른 공정들이 거의 끝날 무렵부터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아직까지는 로벽을 다 쌓아 놓고도 몰탈이 마를 때까지 1 주일 씩이나 불을 넣지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였었다.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전기로 건설을 다그쳐 온 보람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공장들과 건설장들에서 얼마나 많은 강재가 요구되는가. 그런데 우리 손이 하루 늦으면 그 만큼 나라에서 요구하는 강재 생산이 늦어진다. 우리가 맡은 로벽 쌓는 공정에서 기일을 하루라도 당길 수는 없을가?)

두 축로공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그들에게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의 과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가 떠올랐다. 그 때 수상 동지께서는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상 동지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그 날부터 두 젊은 축로공은 로벽 쌓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들은 매일 같이 하루 일을 끝내면 내화 벽돌 무지로 가서 하루'밤 사이에도 몇 번씩 로를 쌓았다 헐었다 하면서 연구를 하였다. 극성스럽게 내화 벽돌을 다루고 보니 로동 장갑은 이틀이 못 가서 형체도 없이 닳아 떨어졌다. 어떤 때는 손끝이 닳아 피가 터지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식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때 쉬는 참에 돌격대원들은 김 남규, 최 봉식 동무들이 무슨 나무쪽인가 깎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장기 쪽을 깎으려면 동그랗던가 여덟 모가 나야지 넙적하고 길쭉하고, 그게 뭐야》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기는 무슨 장기, 아이들 놀이'감이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쪽도, 아이들 놀이'감도 아니였다.

내화 벽돌처럼 깎은 그 나무쪽을 가지고 그들은 집에 가서도 새로운 로벽 쌓는 법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새 전기로의 로벽 쌓기에 착수하기 며칠 전 두 축로공은 설계도 한 장을 들고 돌격대장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우리들이 생각해 낸 새로운 축로법입니다. 쓸모가 있는지 토의하여 주십시요.》

《이건 아직 누구도 해 보지 못한 방법이 아니요? 아주 훌륭하오. 이걸 이 번 새 전기로에 도입하여 봅시다!》

돌격대장은 그들의 손을 잡아 흔들며 환성을 올렸다.

두 축로공의 창안으로 로벽 쌓기에서 650%의 능률이 올랐다. 그리고 몰탈을 쓰지 않는 이 로벽 쌓는 방법은 로가 마르도록 안타깝게 기다리던 1 주일 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두 젊은 축로공은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새 전기로 건설에 바쳤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기초를 굴착하던 때 돌격대원들 앞에는 예상 외로 수천 립방 메터의 광재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이만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집채 같은 덩어리와 헌 남비 같은 것들이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런 난관 앞에서 추호의 동요와 실망을 몰랐다.

어느날 소대장 김 수권 동무가 작업복을 떨고 나서며 말했다.

《자, 모두 모여! 오락회나 좀 하자구…》

어느덧 돌격대원들은 곡괭이가 탕탕 튀여나 속을 썩이던 것도 잊고 한데 어울려 노래 부르고 춤추며 돌아 갔다.

잠시 후 소대장 동무는 대원들의 노래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며 어디론가 살아졌다가 한참 만에야 권양기와 와이야로쁘를 끌고 왔다.

《자, 이제는 저 놈 집채 같은 광재'덩이를 끌어 냅시다.》

그 소리에 대원들은 즉시로 소대장의 결심을 알아 차렸다. 과연 조금 뒤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 일하는 용해장의 강철 전사들이 천장 기중기 한 대를 돌려 주었다. 그리 하여 일'자리가 푹푹 났다.

작업장은 젊은이들로 하여 언제나 들썩하군 하였다. 청년들의 불 타는 열의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들 속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한 돌격대원 동무가 동무들에게 밤 작업하고 돌아 가는 사람들 속에서 며칠 전에 휴가 받은 한 동석 동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작업장에 나타났다.

《왜 나왔소. 며칠 전에도 동무를 다른 소대 작업장에서 보았다던데 그게 빈 말이 아니였군…》

《소대장 동무, 제발 저를 일하게 해 주십시오. 휴가야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투장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그들은 한시라도 건설장을 떠나기를 싫어하였다. 사실 랑만이 넘치는 이 전투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건설 대학의 윤 광의, 외국어 대학의 박 명자, 박 익재 학생, 간호원 김 동주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420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이 자랑스러운 일터에다 자기의 휴가와 대휴날을 바쳤던 것이다.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예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로력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였던 기초 굴착 작업도 3 일이나 앞당겨 1 주일 만에 해 내였다.

그 밖에도 《묶음식 용접법》을 도입하여 600%의 놀라운 능률을 내게 한 김 영일, 한 창옥 용접공들이며 자기의 맹세 대로 꼭 《철근 완곡기》를 만들어 내고야 만 홍 춘근, 송 태옥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등 건설장에는 수많은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꽃피여 났다.

× ×

일제 시기 같으면 3 년이 걸려야 한다던 대형 전기로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 의하여 불과 43 일만에 건설되였다.

이것은 민청 5 차 대회에서 하신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들이 당 앞에 드린 첫 로력적 선물이였다.

그들이 건설한 이 7 호 전기로는 자랑스런 《사로청호》의 칭호를 받았다. 지금 배전실 벽에는 이 청년들의 위훈을 말해 주는듯 커다란 《사로청》 휘장이 부각되여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지상 강좌

항일 무장 투쟁 력사 (1)

력사학 학사 송 지 영

192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조선 로동 계급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령도자로서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 후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하에 보다 적극성을 띠면서 폭동적 형태로 전개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고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혁명 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장 투쟁 단계로 발전시켰다.

1.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 동만 혁명 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의 개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 유격대의 조직,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의 창설.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 로동자, 농민의 혁명 투쟁이 앙양되는 과정에서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크게 장성하였다.

다른 한편 만주를 강점한 일제가 조선을 대륙 침략의 공고한 후방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파쑈적 폭압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대중을 혁명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이 또한 심하여졌다.

조선 혁명 앞에 조성된 이러한 주객관적 제 조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이며 목적 지향성 있는 지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조직 지도자로서 출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성된 정세와 민족 해방 투쟁의 경험을 분석 총화한 기초 우에서 조선 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투쟁 행정에 제기된 적극적 투쟁 형태를 더욱 발전시켜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는 무장한 혁명 력량의 조직적 투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또 그를 위한 모든 가능성이 성숙되였다는 것을 통찰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9.18 사변 직후 안도에서 소집된 지방 당 및 군중 단체 책임자들의 회의에서 항일 무장 투쟁만이 조선 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투쟁에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으며 모두다 손에 무기를 잡고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상비적 혁명 군대에 의한 무장 투쟁 로선은 맑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을 당시 조선 현실에 가장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것이였다. 이는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여 투쟁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였다.

이 로선의 실현은 조선에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를 이룩하는 가장 확고한 길이였다.

그리고 항일 무장 투쟁은 광범한 대중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을 강화하며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영향을 철저히 청산하고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로선이였다.

동시에 항일 무장 투쟁 로선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중 인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여 국제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로선이였다.

항일 무장 투쟁에로 이행할 데 대한 로선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우선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유격 대오를 조직하며, 혁명 운동을 발전시킴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진 두만강 연안 국경 지대에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하며 또 항일 유격대를 중심으로 혁명의 핵심적 지도 력량을 꾸리고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할 방침을 수립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해서 밝혀진 이 길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섰다.

공산주의자들은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 혁명의 고조 시기에 무장 대오 조직을 위한 투쟁을 대중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전개하였다.

특히 이 때 간도 지방에서도 대중들의 반일 투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간도의 거의 전 지역에서 조선 인민에 대한 대중적인 학살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 사람 100 명을 죽이면 그 중에는 적어도 공산당원이나 공청원이 1 명은 있을 것이다》, 《조금도 사정 없이 조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 조선 주둔 19 사단의 기병대와 포병대까지 동원하여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학교와 주민들의 가옥까지 모조리 소각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만행은 인민 대중들의 분노를 극도에 달하게 하였는바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의 앙양된 반일 기세에 의거하면서 무장 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불면 불휴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혁명 군중들 속에서 인민들이 나갈 길은 오직 자신을 무장함으로써 일제와 착취 계급을 반대하여 보다 결정적으로 나서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갖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모든 혁명 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두로 한 조직된 군중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기 획득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장 획득은 적의 무기를 탈취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에 주로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혜를 짜고 목숨을 내건 간고한 투쟁에서 한 자루 한 자루의 무기를 획득하였다. 적의 경찰 기관과 지주의 집을 비롯한 적 무장 성원 집결처와 류동하는 적 무장 성원에 대한 대담하고 민활한 습격을 통해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무기 획득 투쟁에서는 혁명 조직들에서 단련된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로 조직된 인민의 자위적 반군사 단체인 적위대, 소년 선봉대의 역할이 컸으며 지어 로인들과 아동 단원들까지 무기 공작조를 조직하고 때와 장소를 선택하여 대담하게 적의 무기를 획득하였다. 한 자루의 무기를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바친 동무들이 실로 허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한편 혁명 군중들의 창발성을 발동시켜 갖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무기와 화약을 제조하였는바 《연길 폭탄》과 같은 위력 있는 폭탄까지 만들어 냈다. 무기 획득을 위한 투쟁과 병행하여 각 지방들에서는 혁명 조직들에서 선발된 청년들을 집결하여 산중에서 비밀리에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 항일 유격대가 결성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무력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1932년 초에 안도현에서 항일 유격대를 결성하였다.

동만 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에 북만과 남만에서도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북만의 위하현, 방정현 등지에서는 김 책, 리기동 등 동지들이 활동하였으며 요하현, 호림현, 무원현 등지에서는 최 용건, 리 학만 등 동지들이 활동하였다. 같은 시기에 리 홍광, 리 동광 동지들은 남만의 반석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항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인민의 첫 혁명적 무장 대오였다.

항일 유격대는 일본 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를 반대하고 조선에 진정한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다. 항일 유격대는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무장을 든 공산주의자들의 자각된 부대로서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일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결성하면서 유격대 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유일적인 령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를 조직하면서 병사들 중에서 군사 정치적으로 유능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그들로서 지휘 성원을 꾸렸다.

항일 유격대는 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인민의 혁명 군대로서 인민 대중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으며 인민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부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유격대는 그 조직 초기부터 도처에서 일본 군대와 위만 군대 및 경찰들을 습격하였으며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각지에서 적과의 영웅적인 전투를 통하여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 결과 1932년 10월 경에 이르러서는 동만 각현에 1개 대대 이상의 항일 유격대가 활동하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투를 통하여 유격대를 단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대오의 사상 의지, 행동상의 통일 단결과 부대의 장성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행정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여 갔으며 핵심 대렬이 점차 확대 강화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대중 속에서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동만과 함북 일대의 많은 지역들에서 혁명 조직들이 확장되여 갔다.

항일 유격대는 대중들에 대한 혁명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그들을 각성시켰으며 반일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인민들은 항일 유격대를 자기들의 해방자로 믿었으며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지지 협조하여 나섰다. 대중들의 투쟁은 유격 투쟁에 고무되면서 그칠 새 없이 계속 전개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은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전개되였으며 대중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조직 집결하면서 더욱 강력한 힘으로 장성 발전되여 갔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에서 장성하는 대중 운동을 무장 투쟁에로 조직화하는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조선 혁명 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았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혁명 운동의 경험과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중의 새로운 투쟁 형태를 일반화하며 분산된 력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인 빨찌산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민족 해방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 ×

항일 유격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하반기부터 유격 근거지 창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유격 근거지 창설 문제는 항일 무장 투쟁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서 제기되였다.

유격 투쟁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 또 그것이 적 후방에서 전개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유격대가 의거하여 투쟁할 수 있는 근거지 즉 자체의 력량을 보존 강화하며 군사적으로 적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기 위한 유격대의 공고한 후방이 필요했다. 동시에 항일 무장 투쟁이 혁명 운동의 주되는 투쟁 형태로 전개되는 조건에서 근거지는 유격 전쟁의 지탱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혁명 력량을 보존 육성하며 조선 혁명의 전반적 행정을 지도하는 혁명의 근거지로서 필요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혁명 근거지를 해방 지구의 형태로 두만강 연안의 국경 산악 지대에 창설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일제의 통치가 더욱 강화되여 혁명의 지도부를 국내에 둘 수 없게 된 조건 하에서 조선 혁명의 전반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유리성을 정확히 고려한 데 기초한 것이였다. 동만 지방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조선 사람들로 구성되여 있고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조직된 군중적 토대가 있으며 또한 산악 지대에 의거하여 유격대의 활동과 적의 침습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대는 중요하게는 조선의 북부 산업 중심지들과도 련결되여 있었으므로 혁명 운동에 대한 전반적 지도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또한 그 지방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대이고

쏘련과 린접한 지대로서 국제 혁명 력량과의 련계의 강화 특히 중국 인민과의 공동 투쟁에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끝으로 일제의 만주 강점 초 시기에 일제와 그의 괴뢰 《만주국》을 반대하는 조중 인민들의 반일 운동은 급격히 앙양되여 《구국군》을 비롯한 30여만에 달하는 반일 부대가 무장을 들고 일어 난 정세에서 일제는 부득불 자기 힘을 주로 이 반일 부대와의 투쟁에 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동만 지방에만 력량을 집중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면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유격대의 무장 력량에 의거하여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창설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갔다. 근거지 창설은 우선 적의 공세를 격파하고 혁명 군중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지형 조건이 유리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근거지 창설을 위한 투쟁은 원쑤들의 준동을 격파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동반하였다. 동만 각 현에서는 1933년 초까지만 하여도 비록 소규모적이였으나 수백 회에 달하는 련속적인 전투들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근거지들이 착착 설정되여 나갔다. 왕청현에서는 대왕청, 소왕청의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요영구, 대황구 기타 다칸즈 영창동 등지에서, 연길현에서는 삼도만 일대와 의란구, 석인구를 중심으로 하여, 훈춘현에서는 대황구, 연통라즈 등지를 중심으로 하여 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1932년 가을부터는 왕청현의 도가선 철도 연선의 도시를 제외한 지역과 연길현의 경도선 철도 연선 이북 지역, 훈춘현의 밀강 류역과 훈춘하 이남 연통라즈 일대 등 광대한 지역이 유격대의 세력권 내에 들어 오게 되였으며 이 일대는 적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구로 되였다. 1933년 봄부터는 화룡현의 어랑촌 우복동 일대도 해방 지구로 되였다. 각 현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는 산맥을 통하여 호상 련결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근거지 내에서 우선 혁명 조직들을 조직 정비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청장년들로써 조직된 반(半) 군사 조직인 자위대, 소년들로 조직된 반(半) 군사 단체인 소년 선봉대도 조직 정비되였다. 이로써 근거지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반일 투쟁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군중적 토대를 튼튼히 닦았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는 낡은 통치 체계가 타파되고 1932년 11월부터 혁명 정권(쏘베트 형태)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구에는 구 정부, 촌에는 촌 정부가 각각 조직되였다. 구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지역들에서는 혁명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가 창설됨으로써 항일 유격대는 자기의 공고한 후방에 의거하여 무장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항일 무장 투쟁과 전반적 혁명 운동을 발전시키며 그의 책원지로서의 근거지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저해하고 있었던 좌경 모험주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좌경 모험주의적 편향은 혁명 투쟁이 급격히 격화되는 조건에서 소부르죠아적 《혁명성》이 발로되였으며 당시 혁명 대렬 내에 존재한 주되는 위험이였다. 좌경적 편향은 주요하게는 《혁명적》 구호로 자신을 가장하는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부식 조장되였다. 특히 종파 분자들이 당시 동만 당 조직들의 적지 않은 지도적 지위에 잠입하여 있은 데로부터 사태는 더욱 악화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유격대를 조직한 초 시기부터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각계 각층 반일 력량과 통일 전선을 맺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일성 동지는 유격대를 조직한 직후 남만에 진출하여 민족주의자들의 무장 부대인 독립군 부대와 중국 반일 부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32년 초 겨울에 안도로부터 왕청에 오신 이후 김 일성 동지는 좌경적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의 통일 전선 공작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좌경 분자들의 방해에 의하여 전반적 지역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후 좌경적 편향은 1933년 봄 왕청현에서 소집된 동만 당 일'군들의 회의에서 비판되였다.



《대하는 흐른다》에 반영된 계급 투쟁

문학 학사 김 오준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지금 독자들 속에서 광범히 애독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치고 작중 인물들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들의 운명에 대한 론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각자는 이들의 운명에 대한 자기 대로의 추측과 예상을 가슴 속에 깔아 둔 채 다음 제 2 부에서 내려질 작가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왜 이 작품이 그토록 광범한 독자들 속에서 애독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작품 속에 해방 직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력사가 진실하게 반영되여 있기 때문이다. 마 영기와 배 명희를 포함한 작중 인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계급 투쟁의 진리를 배우며 계급 투쟁의 경험으로 무장하려는 독자들의 지향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인류 사회의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을 묘사 대상으로 하는 문학 예술이 생활의 진실을 그린다는 것은 계급 투쟁의 진실을 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묘사하며 근로 인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할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는 필연적으로 계급 투쟁의 진리를 폭 넓고 깊이 있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해방으로부터 토지 개혁에 이르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온 가장 의의 있는 한 시기를 자기의 력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 반세기 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종지부를 찍고 장차 우리 나라는 어디로 가며 인민들은 어떤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만큼 이 시기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정치적 립장을 밝혀야 할 시기였고 실지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시기였다.

이 작품은 바로 이와 같이 긴장하고 복잡한, 그러면서도 가장 의의 있는 한 시기를 력사적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해방 직후의 력사를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인식시켜 주며 계급 투쟁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준다.

× ×

이 작품에서는 우선 해방 직후의 간고한 혁명 투쟁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수행되였고 계급의 원쑤는 어떠한 자들이며 조선 혁명은 누구에 의해서 령도되고 인도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무려 8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활 경위와 계급적 처지,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여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립장과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이들은 상반되는 두 계렬의 인물 집단으로 갈라 볼 수 있다. 항일 투사 강 형진을 비롯한 장 길봉, 리 득범, 한 덕삼, 배 덕걸, 마 영기, 배 명준 등으로 대표되는 긍정 인물들은 개성 상의 이러저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새 조국의 력사를 창조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한 길 우에 서 있다. 반면에 지주 배 덕수를 비롯한 배 명달, 서 상국, 김 장로, 배 치순, 최 일벽 등으로 대표되는 부정 인물들은 인민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며 낡은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발악한다.

계급 투쟁에서 피와 땀을 흘렸으며 혁명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뛰여 다닌 사람들—그들은 바로 리 득범이나 장 길봉이와 같이 과거 사회에서 일제와 자본가들의 모진 착취를 받으면서 쓰라린 생활을 하여 온 사람들이며 한 덕삼이나 배 덕걸이와 같이 지주의 착취 밑에서 신음하면서 헐벗고 굶주려 온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지난날에 헐벗고 굶주리며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동물》처럼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 온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밝고 옳으며 참신하고 위대한》 력량이다. 그들만이 해방된 이 땅에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과 정열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곧 해방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와 반면에 력사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으며 인민의 위대한 흐름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배 덕수와 같이 지난날에 일제와 결탁하여 인민의 고혈을 빨아 먹고 살아 온 자들이며 배 명달이나 서 상국이와 같은 미제의 충실한 사환'군들이다. 또한 김 장로와 같이 종교의 간판 밑에 순진한 우리 인민들을 롱락하고 외래 침략 세력과도 서슴없이 결탁하는 자들이며 최 일벽과 같은 사기'군—변절자들이다. 이 자들은 계급의 원쑤이며 인민의 원쑤들이다. 또한 이 자들은 인간적으로도 가장 더러운 쓰레기들이다.

혁명 력량과 반혁명 세력 간에는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진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계급 투쟁을 시종 일관 승리에로 이끄는 힘이 무엇이며 그 힘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를 정당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해방 후의 치렬한 계급 투쟁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김 일성 장군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승리의 로정은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이의 로선에 끝까지 충실한 결과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인민 정권이 서야 한다는 강 형진의 말에 배 덕현은 이렇게 응수한다. 《허허허…그러지 않아두 내 지금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을 공부하고 있소.》 배 덕현의 이 말은 곧 해방 후 우리 인민의 도도한 흐름을 특징짓는 말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군당 비서 강 형진의 형상은 바로 김 일성 장군의 사상을 구현하는 조직자이며 집행자이다. 그는 김 일성 장군이 제시한 로선에 확고히 서서 높은 정치적 식견과 풍부한 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능숙하게 계급 투쟁을 조직한다. 그는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꾸리고 거기에 튼튼히 의거하여 계급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간다. 혁명의 승패, 계급 투쟁의 성과 여부는 결국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본 군중은 물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며 또한 인정으로 해서 원칙을 저바리지 않는다. 그의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각계층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명백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계급 투쟁에서 적아 간을 정확히 식별하며 혁명적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강 형진은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고 능숙하게 처리한다. 그는 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으면서 원쑤들을 면바로 친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계급 투쟁에서 키잡이를 옳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그것은 조선 혁명에 대한 김 일성 장군의 옳은 로선이며 이 로선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이다.

× ×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계급 투쟁이야말로 가장 복잡하고 준엄하며 간고한 투쟁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각개 인물들의 각이한 운명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간 관계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실례로 명희의 경우를 들어 보자. 그는 인민의 원쑤인 배 덕수의 딸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빚 때문에 지주 배 덕수의 첩으로 팔려 가서 갖은 천대와 수모를 받다가 불행한 일생을 마친 어머니의 딸이다. 그는 배 덕수, 본댁, 서울첩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범죄와 더러운 소행들을 보며 숨막힐듯한 담장 안에 들어 서는 것이 을씨년스러우면서도 거기에서 뛰쳐 나오지는 못 한다. 또한 그는 외삼촌 댁에서 살면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인정 세계를 보면서도 명준이가 이끌고 신안동 사람들과 마 영기가 권하는 길로 선뜻 나서지는 못 한다. 그러나 계급 투쟁은 언제까지나 그를 투쟁의 테두리 밖에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 필경은 그도 계급 투쟁의 물'결 속에서 어느 한 편에 확고히 발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계급 투쟁 과정에는 장 인표와 같은 인물도 있다. 그는 두 정치 세력 간에서 동요하다가 마침내는 반동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계급 투쟁은 이런 인물들과도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금융 조합장 장석근을 비롯한 소위 군내 《유지》들과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과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 속에 끼여 들어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최 일벽과 같은 자들도 결정적으로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 투쟁의 복잡성은 비단 계급적 원쑤들과의 관계에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혁명 군중들 호상 간에도 이러저러하게 표현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 인물들은 처음부터 다 완성된 공산주의자—혁명가는 아니다. 그들은 주관적으로는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나 아직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고 방법이 세련되지 못 한 데로부터 오는 일련의 부족점을 발로시키고 있다. 이것은 크나 적으나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혁명 발전에 이러저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급 투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곧 본질 자체는 아니다. 계급 투쟁을 둘러 싸

고 벌어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들은 대번에 그 계급적 본질이 반드시 로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들은 공개적으로 혁명을 반대하여 진출하나 어떤 자들은 자기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 또 어떤 자들은 의식적으로 혁명을 반대하나 어떤 자들은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또 계급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 형식도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김 장로와 같이 혁명의 무력을 탈취하려고 덤벼 드는 놈들도 있고 서 상국과 같이 간부들의 암살을 꾀하는 놈도 있으며 그런가 하면 소위 《유지》들과 같이 어부지리를 탐내여 비렬하게 나오는 놈들도 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계급 투쟁은 다양한 형식을 취한다.

혁명은 이 모든 것을 가려 내고 정확히 판단하며 적아를 옳게 식별하고 원쑤들을 면바로 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계급 투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장한 투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계급 투쟁은 매우 복잡한 투쟁인 동시에 매우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이다.

계급 투쟁은 어떤 개인의 존망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계급의 존망 문제이다. 또 이것은 배 덕수나 배 명달, 김 장로, 최 일벽과 같은 가장 교활하고 탐욕적이며 추악하고 잔인한 자들과의 투쟁이다. 이 자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으며 온순하게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이 자들은 모든 가능한 기회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으며 혁명을 질식시키려고 발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의 계급적 원쑤들이란 바로 어떠한 자들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해방과 함께 자기의 발판이 산산 쪼각이 나고 인민들 앞에서 지은 죄과로 하여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판국에도 배 덕수는 용케 나까무라의 토지 문서를 넘겨 받아 그 소작료를 받아 먹을 것까지 생각해 낸다. 이것이 우리의 계급적 원쑤인 지주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도리여 그것은 뭇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밖에 자아 낼 것이 없다. 시대의 움직임을 거슬리는 소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 덕수는 빚값으로 올려 온 명희 어머니를 실컷 롱락한 끝에는 그를 헌신짝 같이 내여 던진다. 그리고는 앓아 누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한을 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염섬조차 하지 않는다. 롱락할 대로 롱락하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 먹은 대'가는 황 서방에게 지워 내려 보낸 쌀 한 말이다. 이것이 지주들의 《인정》이다. 지주들이란 인간적으로 이렇게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계급적 원쑤들의 이러한 본성과 최후 발악—이것은 곧 계급 투쟁의 준엄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계급 투쟁이 매우 간고한 투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정당하게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원쑤들은 반드시 멸망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력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어 간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계급 투쟁을 거부하며 계급의 타협과 협조를 설교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잡교대와 같은 리론의 기만성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벗으로 되여 본 적도 없고 또 영원히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놈들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를 해치며 우리를 《소멸》하기 위해서 틈을 노린다. 원쑤들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그것은 우리의 계급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가져 올 수 있다. 배 덕수가 배 덕현이나 마 봉서네 집에 쌀말이나 보내 준 것이 그 어떤 인도주의적 심정에서였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미끼를 던지고 고기를 먹자는 심사였다. 마 봉서에게 청혼을 한 것은 명희나 영기를 위해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은 허물어져가는 자기의 지반을 그 집 힘을 빌어 다시 꾸려 볼가하는 망상에서였다. 배 덕수와 같은 자에게서 그 어떤 사소한 인간성이나 인도주의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어찌 우리와 그들 사이에 그 어떤 공통적인 리해관계나 감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급 투쟁이 필요 없단 말인가? 배 덕수와 같은 자들과는 오직 투쟁이 있을 뿐이다. 계급 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 싸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적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워 놈들을 지구상에서 소멸하여야 한다.

남조선 앞뒤'골목

미국식 《국산 영화》

《바람난 고양이》라는 이상 야릇한 《국산 영화》가 서울 장안에 나타났다.

화면의 풍경은 틀림 없이 《한국》이요, 등장 인물들도 틀림 없이 《한국인》들인데 이상하게도 배우들의 옷차림과 얼굴 모양은 어떻게 된 셈인지 흡사 양키들을 닮았더라는 것이 이 영화를 본 관람자들의 평이다. 심지어는 확성기를 통하여 울려 나오는 주인공들의 말까지가 모두 혀꼬부라진 소리였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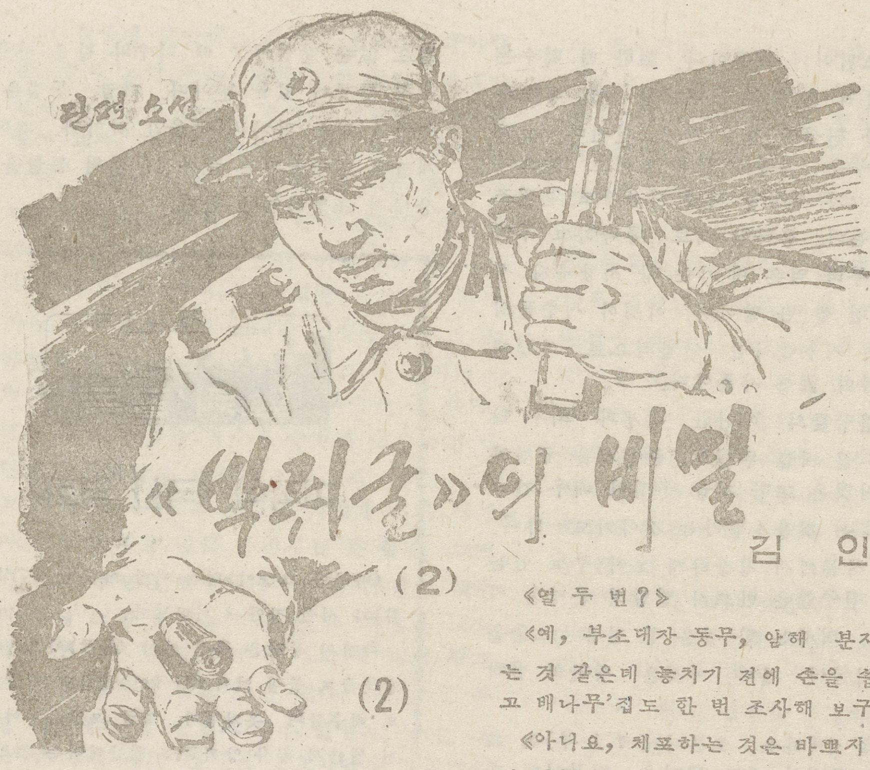
이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는 리 승만과 같은 미국의 손때 묻은 늙다리도 양복 우에 두루마기를 껴 입으면 《국부》 행세를 할 수 있었고 군사 불한당인 박 정희와 같은 친미 친일 주구도 군복 우에 사복만 걸치면 《대통령》으로 통하는 남조선 땅에서 주인공의 국적조차 분간키 어려운 이 따위 괴이한 영화가 으젓한 《국산 영화》로 행세했다고 해서 하등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상이 이쯤 됐으니 백악관의 관리들이 남조선을 《작은 아메리카》라고 손'벽을 치며 기뻐 날뛰는 것도 가히 알만 한 일이다.

그러나 양키들이 그렇게 기뻐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미국식 생활 양식》에 썩고 멍든 남조선 땅에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민족의 기백은 도도히 물'결치고 있거니 분노한 인민들이 한 번 들고 일어 나면 추악한 그 모든 것을 쓸어 버리고 말 것이다.



단편소설

《박쥐굴》의 비밀

(2)

김 인 섭

우물 사건이 있은 이튿 날 창바위'골 뒤'산에는 전에 없던 묘 하나가 새로 생겼다.

마을 아낙네들은 나무 한 대 없는 반반한 잔디밭에 생긴 묘를 바라 볼 때마다 불쌍하게 죽은 영실이를 생각하면서 비통해 하였다. 그러나 그 《묘》 속엔 영실이가 아니라 병수와 인철이가 들어 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곳에서 약 5 리쯤 되는 곳에 그런 묘가 또 하나 생겼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병수와 인철이는 사흘 동안을 그 속에서 보내며 줄곧 우물만 감시하였다. 그들은 그 동안의 감시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마을 아낙네들은 영실이가 죽은 그 날부터 모두 우물에 발'길을 끊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날씬하게 생긴 한 처녀만은 밤마다 물을 길어 가지고 배나무'집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였다.

—도대체 처녀는 누구일가?—

병수는 앞에 뚫린 자그마한 구멍으로 우물을 내다 보면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인철이를 조용히 불렀다.

《인철 동무, 그 처녀가 물 길어 간 통계를 내보았소?》

《예, 다 내보았는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오늘 길어 간 것만 해도 열 두 번이나 되니까요.》

《열 두 번?》

《예, 부소대장 동무, 암해 분자가 틀림 없는 것 같은데 놓치기 전에 손을 씁시다. 그리고 배나무'집도 한 번 조사해 보구요.》

《아니요, 체포하는 것은 바쁘지 않소. 우리의 임무는 어느 한 놈을 체포나 하는 것이 아니요.》

인철이는 배나무'집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말했으나 병수는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집은 아들 형제가 적에게 학살 당한 후 로인 내외가 남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집이며 열 여덟 살인 그 아들 역시 자위대원이였다.

—일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가?—

병수는 배나무'집 자위대원과 련계를 가지고 자세한 것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묘》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배나무'집에 찾아 갔을 때 아들은 없고 로파 혼자만이 있었다.

《군대 어른들 오셨수?》

로파는 마당 안으로 들어 서는 두 사람을 반겨 맞이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아드님은 어디 갔습니까?》

《자위대에서 모인다고 하면서 가더니 아직 안 왔수…무슨 일이 있수?》

《아닙니다. 그저 좀…》

《요즈음은 무슨 일이 그다지도 바쁜지 집에 붙어 있을 때가 별반 없다우다. 며칠 전에는 저 우 장산'집 영실이가 죽었다구 여기 저길 뛰여 다니더니…》

로파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우물 사건을 보기라도 한듯 며칠 전 일을 늘어 놓으며 인민 군대가 독약을 친 것처럼 나무라는 것이였다.

《할머니도 그 일을 아십니까?》

《우리 집 애한테 들어서 알았수다, 애비 에미를 다 객지에서 잃어 버리구 불쌍히 남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요즈음은 죽은 그 애를 생각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우…》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다니요? 그럼 할머니의 아드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에그, 그 끌끌한 아들들은 다 미국놈들에에게 잡히구 이렇게 령감 로친 둘이 남았수다. 그래두 지금 애를 얻어 왔기…》

병수는 점점 로파의 말에 의심이 생겨서 한 걸음 바투 다가 앉았다.

《그럼 지금 이 집 아드님은 친척이라도 되는가요?》

《친척두 아니우다. 그 애가 하두 불쌍하고 우리두 의지할 곳이 없으니 같이 살지요…》

로파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더니 옛말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들 형제를 미국놈들이 다 잡아 간 뒤 그래두 우리 령감 로친은 살겠다구 피난을 갔다 오다가 그 애를 만났지요. 그애는 길'바닥에 넘어진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를 부르며 울지 않겠수. 그래 너무도 불쌍해서 물어 보니 미국놈들이 자기 아버지를 끌고 나가다가 그렇게 쏘아 팽개쳤다우다나, 리 당 부위원장을 했다든지…그래서 아들두 없는 령감 로친이 그 애를 데리구 왔지요. 그 애가 바로 우리 영달이라우…애는 참 좋아요.》

《………》

병수만 아무 말 없이 머리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어쩐지 수상한 생각이 자꾸 갈마들었다.

처녀가 물을 길어 가지고 이 집 모퉁이로 사라지던 일, 영달이는 후퇴했다가 돌아 오던 길에서 데려 온 사람이라는 로파의 말, 독약을 인민 군대가 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려는 것…

—과연 그가 그처럼 불쌍한 사람일가? 혹시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이 마을에 기여 든 것은 아닐가? 그렇다면 자위대장이 넘겨 주던 탄피는…—

병수는 갑자기 영달이의 총을 보고 싶었다.

이렇듯 병수의 머리 속에서 착잡한 생각이 엉켜 돌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쌕쌔기 네 대가 휘파람 소리를 일으키며 날아 들었다. 놈들은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장산꽃 일대를 핥을듯이 저공하며 돌아 쳤다.

《저 놈들이 누구를 또 잡아 가려구…》

로파가 중얼거리며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긴다.

병수는 맴돌이 치는 적기를 쏘아 보는데 로파가 불쑥

《저 애가 몸을 조심하지 않구…어서 들어서거라.》 하는 바람에 마당 어귀로 머리를 돌렸다. 거기에는 검정 양복을 입고 보병총을 어깨에 건 영달이가 서 있었다.

나이에 비해서 몸이 퍽 큰 영달이는 세모진 눈을 치뜨며 병수를 보더니

《군대 동무들이 오셨습니까?》 하고 굽실 인사를 했다.



《예, 어디 갔댔소?》

병수는 그의 말에 대답하다가 쌕쌔기가 또 쨍—하고 머리 우로 날아 들자 기관단총을 벗어 그 놈을 겨누었다. 그러다가 안 된듯이

《자위대원 동무, 그 보병총을 좀 주오, 저 놈을 빨리…》하며 빼앗듯이 그의 무기를 옮겨 쥐고 몇 발 땅땅 올려 쏘았다.

《그렇게나 쏘아 가지구야 되겠습니까?》

영달이는 류달리 큰 입을 벌리며 히죽이 웃었다. 병수는 그의 말에 응대하려고도 하지 않고 달아나는 적기만 여전히 쏘아 보다가 이윽고 총을 도로 넘겨 준 다음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늬였다. 그러나 병수의 정신은 줄곧 마당에 떨어진 탄피에만 가 있었다.

그는 얼마 후 영달이와 헤여져 마당으로 나오다가 신끈을 매는 척 하면서 탄피 하나를 호주머니에 주어 넣었다. 주위에는 벌써 땅'거미가 가여 들기 시작하였다.

그 날 밤 병수는 탄피 두 개를 놓고 밤 깊도록 골몰하였다. 백 번 보아야 두 개의 탄피는 한 총에 들었던 것이 틀림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가? 그럼 이제까지의 사건이 영달이의 술책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놈이 그의 총을…그럼 처녀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 그는 좀처럼 자리에 누울 수 없었다.

(3)

병수와 인철이는 그 이튿날 배나무'집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갈밭 속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밤에 매복을 섰다. 땅이 내려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한 갈밭 속에는 물이 가득 담긴 큰 도람통이 하나 위장되여 있었는데 몇 메터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고무관이 거기로부터 바다'물 속으로 련결된 것이였다.

병수는 배나무'집 로인에게 물어 보고도 싶었고 영달이를 붙들어 놓고 따져 보고도 싶었으나 서뿔리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원쑤들은 음흉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여간 어떤 놈이 나타나도 나타나겠지…—

병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생각에 잠겼던 인철이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부소대장 동무, 놈들의 책동은 빤드름합니다. 그들의 소굴은 〈박쥐굴〉이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영달이란 놈이 그 처녀와 같이 이제까지 거기에 물을 보장해 주구…》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소.》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밤은 깊어 갔다..

그러나 배나무'집에서는 모기가 몹시 성화를 먹이는지 누군가 모기'불을 활활 피우고 있었다. 그걸 보니 하루'밤 헛'일을 한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연기보다 불'길이 더 극성스럽게 피여 오르는 모기'불을 볼 때 무슨 모기'불을 저렇게 밤'중에 피우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저것도 무슨 곡절이 있는 노릇이 아닐가?—

—로인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두 사람은 이렇게 의심을 사 보기도 하고 지워 버리기도 하면서 긴장한 잠복의 밤을 계속 지새여 나갔다.

닭이 세 홰를 칠 때였다.

두 사람은 일시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숨소리를 죽였다. 바다 쪽에서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려 오는가 하면 집 쪽에서는 또 사르륵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 왔던 것이다.

《영달이 놈이 나옵니다.》

인철이가 흥분을 누르며 속삭였다.

아닐세라 예견했던 광경이 눈앞에 벌어졌다. 해안으로 다가 오던 자그마한 배가 물에서 100 메터쯤 상거한 물 우의 바위 앞에 와 멎는 순간 사르륵거리던 놈이 다가 와 도람통에 고무관을 련결하는데 그것은 검정 양복을 입고 농립모를 푹 눌러 쓴 낯 모를 청년이였다.

—이건 또 뭔가?—

인철이가 병수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질렀다. 병수는 아무런 응대도 않고 전혀 뜻밖인 그 청년에게만 눈을 쏘고 있었다. 그도 역시 영달이 아니면 처녀가 나타날 줄만 알았다.

—고무관은 저 바다의 바위에까지 들어 간 것이 분명한데 저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병수는 배와 그 놈에게 당장 불벼락을 들씌우고 싶었으나 앞으로의 임무 수행을 생각하여 꾹 참았다.

—저 놈을 사로 잡아야 한다—

이윽고 배는 바위에서 떨어지고 도람통에서 서성거리던 놈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 섰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손 들엇!》

《악!》

벽력 같은 호령 소리에 뒤'이어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해변에 울리는 순간 《땅》하고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 인철이가 쓰러졌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였다.

병수는 비호같이 달려 나가 앞에'놈의 어깨를 총탁으로 냅다 치고 재빨리 몸을 돌리면서 뒤'놈에게 불을 뿜었다.

《따라락 따라락…》

10여 메터 뒤에 벌둥지처럼 되여 딩구는 놈은 영달이였다.

병수는 이를 뿌드득 갈면서 몽둥이에 얻어 맞은 미친개처럼 신음하는 앞에'놈을 포승으로 묶는데 그 때에 보니 그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우 같이 생긴 그 처녀였다.

병수는 그 년을 앞세운 다음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인철이를 부축하면서 곧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즉시 배나무'집을 수색하였다. 수색 과정 그는 로인 내외도 알지 못 하는 영달이의 비밀실에서 파장 160이 장치되여 있는 무전기 한 대를 발견하였으며 체포한 년을 통해 영달이의 내막을 대체로 알게 되였다.

영달이는 백 치원의 땅을 관할하는 몽금포 마름의 아들이였다.

놈은 백 치원이 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이 마을 배나무'집 《양자》로 기여 들었으며 《박쥐굴》에 물과 정보를 보장해 주기 위해 파견되였던 녀간첩과 련계를 맺고 암해 책동을 해 왔던 것이다…

병수는 녀간첩과 무전기를 후송하며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하기 위하여 곧 인철이와 함께 대대에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호에 계속)



문답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문: 얼마 전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그의 필요성은 어데 있습니까?

답: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더욱 성과 있게 추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 준 길을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을 더욱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 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협동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농업 부문 근로자들을 하나의 조직에 묶어 세워 혁명 과업 수행에로 한사람 같이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과거 농민들의 대중 단체로 조직되였던 조선 농민 동맹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우리 나라 농촌 현실에 맞지 않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지난날 농민 동맹이 사업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습니다.

농촌의 면모는 변하였고 농민들의 처지와 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농민들은 오랜 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각성되였으며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였습니다. 농촌의 핵심 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농촌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가 세워졌으며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의 적지 않은 부분을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직접 맡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농촌의 새로운 현실은 협동 농민을 비롯하여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광범한 근로 대중을 묶어 세울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인 대중 단체의 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에서 대중 단체에 망라되지 않은 군중을 조직에 묶어 세우고 그들을 교양하여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당 조직 이외에 청년 단체와 녀맹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동 농장 총 로력자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러한 정치적 대중 단체에 망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 주민들을 교양하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조직체가 필요합니다.

세째로, 오늘의 혁명 정세가 농촌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오늘 국내외의 혁명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되였다하여 혁명의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조성된 유리한 혁명 정세를 리용하여 다가 오는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와 농촌에서의 혁명 진지를 정치적으로 반석같이 꾸려야 합니다.

그런데 농촌 진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해서는 농촌에 혁명적인 정치적 대중 단체, 당의 강력한 인전대를 창설하여야 합니다.

금번 농촌에 조직되는 농업 근로자 동맹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적응한 조직으로 됩니다.

문: 그러면 새로 조직되는 농업 근로자 동맹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입니까?

답: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 농민들과 국영 농목장 및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혁명적 대중 단체이며 당과 농업 부문의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기본 임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전 력량을 동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가 동맹 앞에 제기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업 근로자 동맹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까?

답: 농업 근로자 동맹은 우선 자기의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력을 높이며 농업 부문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제 1 차적 과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아직 계급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을 급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사상 교양 사업을 선행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업 부문 근로자들을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며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쟁과 집단적 혁신 운동을 조직하여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 근로자 동맹은 농업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며 협동 농민들의 후방 생활을 잘 조직하고 나라와 협동 농장들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도록 하는 데 힘을 돌리게 됩니다.

문: 그러면 농업 근로자 동맹의 조직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농업 근로자 동맹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따라 조직하게 됩니다.

지역적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는 것은 중앙, 도, 시, 군, 리 등 행정 구역에 따라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산적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는 것은 동맹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곳인 협동 농장과 국영 농목장 및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 기관, 기업소, 직장들과 농촌 리에 있는 보통 교육 부문 학교, 그리고 진료소, 유치원, 탁아소, 상점 등 편의 봉사 부문의 각 직장들에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농업 근로자 동맹의 조직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답: 농업 근로자 동맹의 조직은 우선 농촌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로농 동맹을 일층 강화하며 농촌의 혁명 진지를 정치적으로 더욱 공고화하게 됩니다.

당의 령도는 대중 단체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농업 근로자 동맹의 조직은 바로 농촌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열어 놓는 것으로 됩니다.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함으로써 로농 동맹이 더욱 강화되게 되는 것은 농업 근로자 동맹에 협동 농민들 뿐만 아니라 농촌 부문에 복무하는 로동자, 기술자들이 들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더 강화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인 련대성과 동지적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함으로써 농촌 진지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은 농촌에서의 당의 령도 체계와 로농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광범한 농업 부문의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정치 단체에 망라되여 통일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농업 근로자 동맹을 조직하는 것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보다 강력히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농촌 문제를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 문제의 성과적 해결은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그들의 자각적 열성,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에 적응한 조직 즉 광범한 군중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며 농촌의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지난 번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 농민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을 새로 내옴으로써 농업 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높이며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사회주의 건설에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의 또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청년생활 소사전

《끓는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

1936년 외국의 한 려행가는 항행 도중 배가 파산되여 구릴렬도의 한 섬에 오르게 되였다.

섬의 어떤 개울'가에서 그는 《죽어서》 둥둥 뜬 물'고기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다가 먹으려고 남비에 넣고 끓였다. 그런데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남비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서 헤염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후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섬은 옛날 화산이였는데 이 물'고기들은 화산 폭발시에 죽지 않고 살아 남아 새 환경에 적응되여 후에 더운 물에서 살게 된 것이였다. 이 물'고기가 사는 호수의 물은 63°C나 되였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적응되였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은 보통 개울'가로 우연히 떠 내려 오게 되자 《얼어》 죽었던 것이였다.

자연 환경에서 뜨거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 보기 힘드나 기록에 의하면 바이칼호 부근에서는 47°C나 되는 온천에서 사는 붕어를 발견하였으며 캘포니아주에서는 57°C나 되는 개울에서 사는 잉어를 발견하였다. 이 외에도 온천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있다.

이것은 생물이 온도에 적응하는 범위가 우리가 상상하던 한계를 훨씬 넘으며 보통 생물도 단련하면 능히 적응되는 온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음으로 물'고기를 몰아 들인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는 주파수가 500~700 싸이클까지의 음을 발사하는 수중 음향 반송기와 청음기를 리용하여 못에서 잉어를 몰아 들이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못 가운데에서 수중 반송기로 잉어 떼가 몰려 들어 먹이를 먹을 때의 소리를 낸 결과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못의 대다수 잉어들이 몰려 들었다.

바다에서도 각종 물'고기들의 소리를 록음하여 편집해서 실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능히 물'고기를 몰아 들이는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청년 시절과 독서

리 재 경

청년 시절—이는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값 높은 시절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청년 시절을 인생의 봄이라 하였다. 청년 시절에 그가 어떻게 배우며 수양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전 생애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독서—이는 청년 시절의 수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독서는 우리들 청년들에게 조국의 유구한 력사에 대해서, 우리의 당과 인민이 쌓아 올린 불멸의 혁명 위업에 대해서 알게 하며 인류가 수천 년 간 쌓아 올린 풍부한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독서는 생활의 문어구에 들어 선 젊은 세대들에게 복잡한 사물 현상의 세계를 깨닫게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의 길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 준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가 없이, 자기 조국의 풍부한 부원과 찬란한 문화 유산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 인민의 위업에 대한 깊은 리해가 없이 어찌 참된 애국자로 될 수 있으며 훌륭한 혁명적 역'군으로 될 수 있겠는가! 또한 책은 그 속에 반영된 주인공들의 고상한 사상 도덕적 품성을 보여 주면서 바로 인간이란 어떻게 살며 일하며 싸워야 하는가를 심장 깊이 느끼게 한다.

독서—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뿌리게 한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사람됨이 겸손하고 그와 비록 짧은 시간에 접촉하여 몇 마디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지식이 천박한 사람과는 온 종일 앉아서 사귀여도 쓸만한 말 한 마디 얻어 듣지 못 하는 수가 있다.

위대한 수령과 탁월한 인간들의 청소년 시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젊은 시절에 밤을 밝혀 가며 독서하고 수양을 쌓은 사람들이였다.

인류의 탁월한 영재이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위대한 수령인 칼 맑스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라는 딸의 물음에 그것은 책 속에 묻혀서 독서하는 때라고 하였고 그의 불휴의 로작인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만도 1,500여 권의 책을 읽고 연구했었다. 위대한 레닌은 짜리 경찰에 체포되여 감옥 속에 있은 그 엄혹한 시절에도 가족들과 친우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맛 있는 음식이나 따뜻한 의복이 아니라 책이였으며 류형지로 압송되기 전에 얻은 2~3 일의 기간도 집에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보냈다. 쏘련의 문호 막씸 고리끼는 소년 시절에 점원과 화부, 심부름'군 등 그야말로 《인간 최하층》에서 생활하면서도 다락 방에 올라가 초'불을 켜 놓고 책을 읽었고 혹은 뻬치카 불'빛에 책을 비추어 가며 공부하여 세계에 명성을 떨친 위대한 로동 계급의 작가로 되였다.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독서와 학습에서의 견결성의 모범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아우성 치는 눈보라 속을 행군하면서도 글을 익혔고 원쑤 일제와의 혈전이 끝난 우등'불가에서도 밤을 밝혀가며 각종 혁명적 출판물을 탐독하였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귀중한 특성들—풍부한 정치적 식견과 사업에 대한 혁명적 전개력, 원칙에 대한 견결성과 풍만한 인간성, 겸손성 등 그 모든 귀중한 자질들은 모두다 그들의 높은 세계관에 기초하는 것이며 젊은 시절에 남달리 수양과 독서에 전심한 빛나는 열매인 것이다.

청년들이 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 사회의 훌륭한 역'군이 되려면 독서를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야흐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시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누가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 청년들이다. 과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상적 수양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봉에 설 수 있겠는가! 지금은 기술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다. 더우기 날로 복잡해지고 째여지는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마땅히 높은 기술, 경제, 문화 등 각방면의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의 휘황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조국 통일의 그 날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어찌 리론과 지식에 대한 축적이 없이 조만간에 다가 올 혁명의 대사변을 맞을 수 있으며 어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준비됨이 없이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그런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겠는가!

시대의 락오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있게 떠메고 나가는 선진 투사가 되기 위해서도 청년들은 응당 더 많은 독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라고 가르치시였다. 청년들은 이 교시를 명심하고 학습의 위력한 수단인 독서에 더욱 정진하여야 한다.

× ×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는 독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이 훌륭히 구비되여 있다.

중앙과 도, 시, 군, 가두와 직장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도서관과 도서실이 설치되고 있으며 수 많은 도서와 신문, 잡지들이 출판되여 산간 벽지에까지 배포되고 있다.

력사를 20 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라! 그 때의 청년들에게는 정녕 배움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조선 청년들은 배울 권리도 없었고 독서할 자유조차 없었다. 오죽하면 공부에 뜻을 두고도 전등조차 없어서 여름 날의 반디'불과 겨울 날 창문에 쌓인 눈'빛 앞에서 책을 읽었단 말이 있겠는가? 참말로 그 때 세월엔 수 많은 조선의 천재들이 빛을 잃고 진흙탕 속에 묻혀 썩고 있었다. 더우기 맑스-레닌주의 서적 같은 것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힘 들었다. 설사 구한다 하더라도 일제 경찰에 들키는 날이면 영락없이 감옥에 붙잡혀 가 중형을 받았다.

또 그 때 시절에는 책을 볼 시간인들 있었는가. 새'별을 등에 지고 일터로 나가고 밤이면 달'빛을 머리에 이고 돌아 와야 입에 풀칠을 하나마나한 그 험난한 세월에 책을 사 본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녕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제도, 행복한 세월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구실로 아직도 독서를 게을리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는 정녕 책 속에 앉아서 책 없는 타령을 하며 복 충에 앉아서 복 타령을 하는 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시절은 독서를 위하여 가장 좋은 시절이다. 청년들에게는 맨손으로 사나운 호랑이라도 잡을만 한 기백이 있으며 피끓는 정열이 힘차게 용솟음치고 있으며 강한 적극성과 의지력이 있다. 또한 청년 시절에는 머리가 맑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추측하여 알 수 있으며 기억력이 왕성하여 한 번 외운 것을 잘 잊어 먹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의지의 세계를 탐지하려는 강한 탐구력, 더 높은 학문의 경지에로 나래쳐 오르려는 향학열에 불타는 이 시절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한 자라도 더 많이 읽고 배워야 한다.

경험은 동서 고금의 명인 대가들도 로년에 빛을 뿌린 그 지식의 축적이 많은 경우 청소년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바야흐로 서늘하고 밤이 긴 가을 철이 왔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거니 긴긴 가을 밤에 불을 밝히고 마음껏 독서함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는가!



맑스와 독서

폴 라파르그

칼 맑스—그는 과학과 사회 활동의 두 령역에서 동시에 제 일선에 설 수 있었던 희유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 두 령역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밀접히 결합되여 있는바 그를 학자인 동시에 사회주의 투사로서 보지 않는다면 그를 리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맑스는 여하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져 올 수 있는 결론들에 대해서 미리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일 학자가 스스로 자기 수준을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사회 생활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되며 치즈 덩어리에 달라붙은 쥐 모양으로 자기 서재나 자기 실험실에 영원히 들어 박혀서 실생활과 동 시대인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투쟁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간주하였다.

《과학은 결코 리기적인 쾌락은 아니다—하고 맑스는 말하였다—따라서 자신을 과학 사업에 바칠 수 있는 행복자들은 솔선해서 자기의 지식을 인류에 복무시켜야 한다.》《인류를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은 그가 즐겨 사용한 표현의 하나였다…

맑스는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인류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을 연구하였지만 한편 글을 씀에 있어서는 그는 오직 자기 연구의 결과를 보급시키려는 명확한 의도와 또 그 이전에는 공상적인 안개 속에서 방황하던 사회주의 운동에다 과학적 기초를 부여하려는 확고하고 명확한 결의 밑에 썼던 것이다. 그는 로동 계급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려는 오직 하나의 목적 밑에 군중 앞에 출현하였다. 로동 계급의 력사적 과업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지도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기 활동에 있어서 맑스는 그가 탄생한 나라의 범위 안에 국한하지 않았다. 《나는 세계의 공민이다—하고 그는 말하였다—따라서 나는 내가 거처하게 되는 곳에서 활동한다》. 사실에 있어서 맑스는 여러 사변과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그가 전전하게 된 모든 나라들에서—불란서, 벨기, 영국에서—그는 그 곳에서 전개된 혁명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탁월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메이틀렌드—파크—로드의 서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내 앞에 나타난 그는 불요불굴의 걸출한 사회주의 선동가로서가 아니라 한개 학자였다. 그 서재에는 각이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 사상의 대가의 견해를 듣고저 문명 세계의 방방곡곡으로부터 당'적 동지들이 모여 드는 것이였다. 사실 그것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방이다. 그러므로 맑스의 정신 생활의 내부적 측면을 리해하려면 이 방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은 2 층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공원 쪽을 향하여 넓은 창문이 나 있어 방 안에는 해'빛이 담뿍 들여 비치였다. 벽난로의 량편과 창문 맞은 편 벽에는 책장들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책이 꽉 들어 차 있고 신문이나 원고 뭉치가 천정에까지 닿아 있었다. 벽난로 맞은 편과 창문 한 옆에는 종이와 서적과 신문들이 쌓여 있는 책상이 두 개 놓여 있고, 방 한복판 광선이 많이 비치는 곳에 그리 크지 않은 아주 검소한 테불(길이 3 피트에 넓이 2 피트의)과 나무로 만든 안락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안락 의자와 창문 맞은편 책장 사이에는 가죽을 씌운 장의자가 놓여 있어 맑스는 가끔 거기에 누워서 휴식하군 하였다. 책은 벽난로 우에도 쌓여 있었고 거기에는 또한 여송연, 성냥, 담배통, 문진(文鎭), 그의 딸과 부인의 사진, 월헬름 월프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맑스는 담배를 몹시 많이 피웠다.

《자본론》은 내가 그것을 저술하면서 피운 담배 값도 물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젠가 그는 나한테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는 성냥을 더 많이 소모하였다. 그는 파이프나 여송연을 피워 물었다가도 절필하면 그것을 잊어 버리고 몇 번이나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까닭에 성냥갑은 어느 사이에 바닥이 나군 하였다. 맑스는 자기의 책이나 서류를 정돈하는 것을(더 정확히 말하면 정돈이 아니라 오히려 란잡하게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책이나 서류는 얼핏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는 오래 찾지 않고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책이나 노트를 곧 집어 들 수 있었다. 지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담화를 하면서도 그는 가끔 말을 멈추고 책을 꺼내서는 자기가 금방 인용한 문장이나 수'자를 보여 주는 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서재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거기에 있는 책이나 서류들은 그 자신의 수족과도 같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서적의 배렬에 있어서 맑스는 외견상의 균형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외형이 각각 다른 서적들과 소책자들이 서로 비좁게 나란이 서 있었다. 그는 외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서적을 배렬하였다. 서적은 그에게 있어 겉치레가 아니라 정신적인 도구였다. 《책은 나의 노예이다—하고 그는 말하였다—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나에게 복무해야 한다.》 그는 서적의 판형, 장정, 종이나 인쇄의 질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책장 귀퉁이를 접기도 하고 여백에 연필로 무슨 부호를 가득 적어 넣기도 하고 글'줄에다 선을 긋기도 하였다. 만일 저자가 그릇된 것을 썼을 때에는 그는 아무런 가필도 하지는 않지만 모처에다 의문부와 감탄부를 찍어야 하겠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가 그은 선은 책에서 필요한 개소를 손쉽게 찾아 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비상히 예민하고 정확한 자기의 기억 속에다 노트나 서적에 표를 해 두었던 개소를 확실히 넣어 두기 위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 간 후에도 다시 그것을 읽어 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헤겔의 권고로 자기가 알지 못 하는 언어의 시를 암송하면서 기억력을 련마하였다.

맑스는 하이네와 괴테의 시를 암송하고 있어서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자주 인용하였다. 그는 모든 구라파 문학에서 시인들을 택하여 항상 그들의 시를 애독하였다. 매년 그는 에스퀼로스를 희랍어 원서로 읽었다. 그는 에스퀼로스와 쉑스피어를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두 천재적 극작가로서 사랑하였다. 그는 쉑스피어를 각별히 애독하였으며 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쉑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가장 사소한 등장 인물까지도 알고 있었다. 맑스의 가정에서는 이 위대한 영국 극작가에 대한 진정한 숭배가 지배하고 있었다. 맑스의 세 딸은 쉑스피어의 작품을 암송하고 있었다. 1848년 이후 맑스는 전부터 읽을 줄 알던 영어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생각 밑에 쉑스피어의 독특한 모든 표현을 수집하여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던 윌리암 코벳트의 일부 론쟁적 저작들도 세심히 연구하였다. 단테와 번즈는 그가 가장 애독한 시인들이였다. 그의 딸들이 스코틀랜드의 시인 번즈의 풍자시를 소리 내여 읊거나 그의 로만스를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맑스는 커다란 만족을 느끼였다…

가끔 맑스는 안락 의자에 누워서 소설을 읽군 하였는데 때로는 몇 책씩 한 번에 시작하여 그것을 번갈아 읽는 일도 있었다. 다윈처럼 그는 소설의 대 애독가였다. 맑스는 주로 18 세기의 소설을 좋아하였는데 특히 필딩을 애독하였다. 근대 작가들 중에서는 그는 폴드 코크, 찰스 레버, 알렉산드르 듀마(아버지) 및 월타 스콧트를 좋아 하였는데 스콧트의 소설 《청교도》를 걸작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모험과 유모어의 요소가 풍부한 단편 소설에 류달리 흥미를 느끼였다.

그는 세르반테스와 발자크를 그 어느 소설가보다도 높이 내세웠다. 《돈 키호테》에서 그는 사멸하여 가는 기사도의 서사시를 보았는데 그 기사도의 미덕은 방금 탄생하고 있던 부르죠아지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기행(奇行)으로 되여 세인의 조소를 사게 되였던 것이다. 발자크를 그는 아주 높이 평가하였는바 정치 경제학에 관한 자기 저작이 끝나기만 하면 곧 발자크의 최대 걸작인 《인간 희극》에 대한 평론을 쓰려고까지 하였다. 발자크는 그 시대의 사회사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루이 필립프의 통치 하에서는 아직 태아 상태에 있었지만 발자크가 죽은 직후 나폴레옹 3 세 통치 하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한 발전을 보게된 그런 제 인물들을 창조적으로 그려낸 사람이였다.

맑스는 구라파의 모든 언어를 읽을 줄 알았으며 특히 3 개 외국어——독일어, 불란서어 및 영어——로 능숙하게 글을 쓸 수도 있었는데 이 언어들에 정통한 사람들이 감탄하여 마지 않을 정도였다. 《외국어는 생활을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라는 말을 그는 즐겨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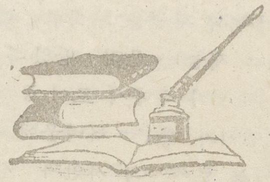
맑스는 굉장한 언어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딸들도 그 재능을 물려 받았다. 맑스는 년령이 이미 50 세가 지나서 로어 공부에 착수하였는데 이 언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년쯤 후에는 로씨야의 시인과 산문가들의 작품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로어를 소유하였다. 로씨야 작가들 중에서 그는 뿌슈낀, 고골리, 쉐드린을 특히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그가 로어 공부에 착수한 것은 관공 문헌들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문헌들에는 전률할 만한 폭로 자료들이 포함되여 있는 까닭에 정부는 그것의 공포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충실한 벗들이 이 문헌들을 맑스에게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맑스는 의심할 바 없이 이 문헌들을 연구할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서구라파 경제 학자였을 것이다…

맑스가 일생을 통한 자기 연구 사업의 장구한 기간에 성심 성의 수집한 장서는 1,000여 권에 달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불충분하여 그는 다년 간 대영 박물관에 열심히 찾아 다녔다. 그는 이 박물관의 서고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맑스의 적들까지도 맑스의 전문인 정치 경제학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력사, 철학 및 세계 각국의 문학에 관한 그의 해박하고 심오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맑스는 항상 매우 늦게야 취침하였지만 그래도 아침 여덟시와 아홉시 사이에는 언제나 일어 나 신문을 읽으면서 검은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서재로 들어가 밤 두시 혹은 세시까지 일하였다. 그는 다만 식사를 하든가 또는 일기가 허락하면 저녁 때에 햄스테드—히스로 산보하기 위해서만 잠간 휴식을 하는 것이였다. 낮에는 한두 시간씩 안락 의자에서 오침을 하였다. 맑스는 젊은 시절에는 보통 온 밤을 새워가며 일하군 하였다.

《맑스에 대한 회상》 중에서



학습에서의 필기

박 임 수

필기는 학습에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필기는 읽는 책이나 듣는 강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려 내여 잘 기록해 두었다가 후에 다시 읽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학습에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읽는 책이나 강의의 참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한 내용을 오래 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한다.

필기를 하여 두면 제때에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기는 학습에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가려 내는 판단력과 독자적인 사고력도 키워 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말을 아름답게 쓰며 자기 생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될 수 있다.

필기하는 과정에서는 정밀성, 정확성 등의 품성도 배양될 수 있으며 미'적 소양도 발전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 근면하고 성실한 학습 태도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필기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발췌하는 필기와 강의를 받으면서 하는 강의 필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강의 필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필기는 우선 자립적인 사고와 결합되여야 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강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받아 쓰기만 하거나 책을 보면서 그 대로 옮겨 적는 것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이미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회고하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여 쓰지 않는다면 강의자의 말이나 책 내용을 그 대로 옮겨 베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 문헌이나 김 일성 동지의 로작에서 중요한 명제들을 인용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정식화한 결론 등은 그 대로 베껴야 한다.

필기는 또한 제목과 결론이 리해되도록 내용을 체계적이며 순차적으로 써야 하며 보기에 편리하도록 되여야 한다. 필기는 후에 복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식에서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쉽게 한 눈에 안겨 오도록 되여야 한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단락이 의미에 맞게 선명하게 구분되여야 한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 간격, 표식들은 적당히 해가면서 자기의 함축된 말로 간결하게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강의 내용을 단락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간결하게 기록하는 것은 힘 든 일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에서 취급하는 기본 내용은 무엇인데 그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재료로 설명하며 그 론거와 결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속하게 자기의 함축된 말로 적어 내려 가야 한다.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 번 곱씹어 이야기하거나 억양을 높여서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인용하여 주는 문장은 그 출처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강의자가 드는 실례 같은 것은 제목만 쓰거나 혹은 기본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거나 그림 또는 도식으로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면 좋다. 그리고 강의자가 보여 주는 직관물, 도표 등 도식들과 흑판에 그리는 략도들도 모두 그려 넣어야 한다.

필기를 할 때에는 학습장의 왼쪽이나 밑에 일정한 여백을 남겨 두었다가 복습 시에 필기한 내용의 체계, 참고 문헌 등을 써 두며 도식으로 내용을 표시해 보며 비교표를 만들어 보며, 잘 기억되지 않는 재료(공식, 법칙, 정리, 술어 등)들을 빼 내여 쓰고 붉은 연필로 괄호를 묶어 두며 또한 보충적으로 읽은 재료나 관찰하고 경험한 실례들도 써 넣는 등으로 그 제목 학습을 심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편, 장은 새로운 페지로부터 쓰기 시작하며 새 편, 새 장을 쓰기 전에 1~2 페지 정도 공란을 남겼다가 여기에 전에 배운 편, 장의 체계와 주요 항목(편, 장, 절, 제목, 소제목, 결론 등)들, 강의 과정에 받은 복습 문제와 참고 문헌 등을 종합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복습과 체계적인 지식 습득에 큰 도움을 준다.

제목과 단락, 항목은 새 줄을 잡아 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련달아 적어 내려 가면 후에 복습하기가 불편하며 체계를 잡기 어렵다. 제목들과 단락 및 항목들을 잘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의 특별한 부호와 표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례를 들면 대 제목은 괄호(□)로 묶어 주고 중 제목은 굵은 밑 줄(——, ═)을 그으며 소 제목은 밑 줄(——)을 긋고 그에 포함되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굽은 밑줄(〰)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 안에서도 대, 중, 소 번호들과 부호들을 달아 가며 쓸 수 있다. 즉 대 제목에는 가, 나, 다, …등을, 대 제목 안의 중 제목에는 ㄱ, ㄴ, ㄷ, … 중 제목 안의 소 항목들에는 "○"또는 "-" 등을 붙여 가며 쓰는 것 등이다.

학습장에 작은 여백도 두지 않고 빼곡히 붙여 쓰거나 또는 글씨를 너무 작거나 크게 쓴 것, 한 지면에 내리 쓴 것, 가로 쓴 것, 빗줄을 잡아 쓴 것 등은 모두 보기에도 나쁜 것은 물론 내용을 복습하고 기억하는 데 불편하다.

일람표나 괘도의 내용 또는 실험 장치와 같은 것을 그려 넣을 때는 그것이 학습장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고 아까워 하지 말고 충분히 크게, 똑똑하게 제 자리에 그려 넣어야 한다. 이것은 내용의 리해를 돕는 주요한 수단으로 되며 복습 시에도 그것을 보면 인차 그 내용을 회상할 수 있게 하여 준다.

필기를 할 때에는 철자법과 문법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물론 학습장은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략자나 부호들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능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략자나 부호들은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 그리고 인용문 같은 데서는 략자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필기할 때나 복습할 때에는 잉크 또는 붉은 연필로 여러 가지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례를 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긍정 혹은 주의를 표시할 때에는 감탄부호(!), 리해 안 되거나 더 알아 보아야겠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의문 부호(?), 중요한 부분이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 정의, 명제, 결론 등에는 참고 부호(※)를 비롯하여 괄호나 밑줄, 옆줄 등으로 표시해 가면서 학습하면 효과적이다.

《독서하고 실천이 없다면 어찌 앵무새가 능히 말할 수 있는 것과 다름이 있으랴.》

《학문이란 하루 종일 오똑하게 앉아서 글만 읽는 것을 말함은 아니다. 학문은 일상 사업의 처리를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을 말할 뿐인데 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의하여 그 리치를 찾는 것이다. 이제 만약 독서만을 학문으로 알고 일상 생활을 도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힘 쓰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찌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리 률곡



모두가 책을 읽기까지

지난 해 어느 날에 있은 일이다. 평양 방직 공장 직포 수리 직장 사로청 위원회 부위원장 김 도근 동무는 문득 휴계실에서 하는 몇몇 동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난 아무리 해도 책에는 취미를 못 붙이겠거던. 책을 쥐면 졸음부터 온단 말이야.》

《책 볼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푹 쉬는 편이 괜찮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김 도근 동무는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확실히 직장 내 일부 청년들 중에는 아직도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 못 한 것이 분명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책에 대한 취미를 붙여 주고 모두다 책을 읽도록 하여야 하였다.

김 도근 동무의 제의에 의하여 며칠 후 직장 사로청 위원회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확립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였다. 여기에서는 종전까지 이 중요한 사업을 직장 내 도서 보급원이나 몇몇 개별적인 사람들의 활동에만 방임하고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지 못 한 점들이 주되는 결함으로 비판되였다. 회의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확립하고 그를 정상화할 데 대한 일련의 대책들과 구체적인 분공 사업들이 조직되였다.

김 도근 동무를 비롯한 직장 사로청 위원회 위원들과 열성자들은 이 때부터 청년들 속에서 제 4 차 당 대회에서 민청 단체들 앞에 제시한 수상 동지의 강령적 교시와 5.3 교시 등을 집중적으로 침투시키는 해설 담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그들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이다》, 《알아야 앞을 내다 볼 수 있소》, 《배움의 첫 걸음》 등 제목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친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들을 가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적지 않은 사로청원들이 독서가 청년들의 학습과 수양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깨닫게 되였다.

그러나 독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그 어떤 일시적인 사상 동원 사업으로만 대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직장 사로청 위원회에서는 우선 청년들 속에서 독서에 대한 취미를 길러 주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를 위하여 사로청 조직들에서는 직장 내 매개 청년들의 준비 정도와 그들의 성별, 년령, 성격, 취미 등을 하나하나 세밀히 료해 장악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매 개인들의 준비 정도와 취미에 알맞는 책들을 선택하여 읽게 하였다. 류달리 수준이 낮은 동무들에게는 짤막한 그림이야기 책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흥미 있는 소설책 같은 것을 읽도록 분공 주었다. 또한 새로운 책이 나오면 집행 위원들이나 열성자들이 먼저 그것을 읽고 그 줄거리를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꼭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청년들의 책 읽는 취미를 높여 주는 한편 독서에 대한 분공 사업과 총화 사업을 제때에 하였다. 독서 분공에는 될수록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망라하도록 했으며 휴가로 쉬거나 려행 간 동무들에게도 적당한 분공을 주고는 그가 직장에 돌아 왔을 때 총화 평가해 주군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직장 내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박 병준, 리 정자, 차 형태 동무들의 우수한 모범과 경험을 광범히 일반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청년들의 독서 열의를 한 계단 높여 준 후 그들은 이 사업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번에는 매개 사로청원과 청년들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일 등을 도와 주었다. 즉 매 개인들의 소질과 지향에 따라 학습 전망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당면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학습에서 참고 문헌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조언을 주고 도와 주었다.

청년들의 독서 열의가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책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높아져 갔다. 이런 실정에서 직장 내에 청년들이 기동적으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실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부위원장 김 도근 동무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100여 권의 자기 책들을 솔선 내놓았다. 그는 청년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동무였었다. 그의 모범은 다른 동무들에게도 일반화되여 적지 않은 사로청원들이 자진하여 책들을 가져 왔으며 불과 얼마 안 되는 어간에 《새 도서실》이 태여나게 되였다. 이것은 서로 없는 책을 유무 상통해 보는 면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였다.

또한 사로청 단체들에서는 종종 작업 현장이나 휴게실들에서 읽은 책에 대한 독서 감상회와 발표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창발적인 방법을 적용한 결과 이 곳 직장에서는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책을 읽게 되였다. 지어 지난 해 말에 있은 《100 일 전투》의 긴장된 시기에만도 직장 내 동무들은 도합 3,6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나 읽은 책들이 매개 청년들의 사상 수양과 혁명 임무 수행에서 은을 내지 못 할 때 그것은 아무런 보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로청 열성자들은 독서가 매 개인들의 수양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돌렸다.

이 직장에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한 동무가 있었는데 그는 아직 직장 일에 안착되지 못 하고 있었다. 이 때 그의 생활을 도와 줄 데 대한 과업을 분공 받은 김 도근 동무는 그를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는 한편 그의 계급적 각오 정도를 높여 주기 위하여 《이 원쑤를 잊지 말자!》, 《행복할수록 지난 날을 잊지 말자!》, 《오늘의 행복이 있기 전에…》 등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도록 하였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동무는 점차로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더욱 똑똑히 깨닫고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되였으며 매일 자기 계획을 120% 이상씩 넘쳐 하는 혁신자로까지 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년들의 독서 사업을 경제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90 일 걸려야 할 직기 조립 작업을 단 40 일 동안에 해 제끼도록 하였고 직장 앞에 제기된 년간 계획도 모범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였다.

바로 이렇게 이 곳 직포 수리 직장 사로청 위원회에서는 세밀하게 짜고 들어 모든 청년들이 책을 읽도록 했으며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 제고와 경제 과업 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공장 신문 주필 최 종남
본사 기자 김 영길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오직 글 읽는 일이다.》

《글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너무 욕심 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 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 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 말고 하라.》

《글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읽는가? 장차 글 짓는 재주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글을 많이 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인가? 아니다. 독서를 하고서 그것의 실용을 모른다면 그것은 학문하는 것이 아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며 리용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 연암

사로청원의 의무 해설 (3)

(3) 사로청원은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항상 혁명 선배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아야 한다.

사로청원들이 로동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의 뿌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 혁명을 령도하는 우리 당이 어떤 력사적 뿌리에서 탄생하였으며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당'적 사상 체계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그것은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이다. 15여 성상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처럼 강유력한 당으로 발전되였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확고히 령도하고 있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조선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의 계승자인 사로청원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배우고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무로 된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과 투쟁 업적을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행복한 새 생활이 혁명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과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고귀한 전취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로청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로청원은 우선 당의 혁명 전통을 심오히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가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목적은 항일 빨찌산들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사상을 배우며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세우는 데 있다. 즉 우리는 혁명 전통 연구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며 사는가를 배워야 하며 그 모범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 전통을 이렇게 연구 체득하자면 그것을 우리 당의 혁명 운동사와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혁명 운동사의 연구는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지 생활에 구현된 리론으로서 배울 수 있게 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의 내용,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전략 전술, 혁명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학습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건과 사적들이 우리 당의 혁명 운동사에서 어떠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며 거기에 체현된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적 풍모는 무엇인가 등을 전면적으로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연극, 영화 등을 감상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로청원은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가 혁명 전통을 학습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배우며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우리 나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로청원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혁명 선배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로청원은 혁명 전통 학습을 자신의 동맹 생활, 사상 생활, 실천적인 행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그것을 일상적인 로동, 학습,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훌륭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며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소유하며 원대한 포부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항상 혁명적이며 락천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로청원은 항일 빨찌산들이 피어린 투쟁으로써 개척하였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웅적 투쟁으로써 꽃 피워 놓은 우리의 혁명적 전취물을 고수 발전시키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생활의 거울

폭풍우 휘몰아치는 밤에…

우리 탄광 운반 직장에는 나어린 사로청원 허 련학 동무가 일하고 있다. 그가 기술 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누구보다도 로동에 성실하며 탄광의 설비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태풍이 세차게 불던 지난 어느 날 밤이였다. 사정 없이 불어 대는 폭풍우는 나무들을 막 쓰러뜨리며 온 탄광 지구를 휩쓸었다.

(저 태풍 속에서 전주며 전차선들이 무사할가?)

야간 고등 기술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련학 동무의 머리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전차 수리공이였지만 전차선이 잘못되면 석탄 생산에서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휘몰아치는 폭풍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 갔다. 금시 날려 버릴듯 불어 대는 비'바람과 먹물 같은 어둠 때문에 한 걸음도 옮기기가 어려웠다. 그럴 때면 그는 레루를 잡고 기였다. 그는 밤새껏 십 리도 넘는 선로 구간을 오르내리며 뒤늦어 나온 선로 수리공을 도와 넘어진 전주들을 바로 세우고 끊어진 전차선을 이어 놓으면서 폭풍우로부터 끝까지 선로를 지켜 내였다. 이렇게 온 밤을 태풍과 싸워 몹시 피곤했지만 그는 조금도 그런 내색은 내지도 않고 다음 날에도 일찍 출근하여 전차 수리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그래서 련학 동무의 이러한 미거는 퍽 후에야 동무들 속에 알려졌다.

흑령 탄광 운반 직장
전 치룡

생활 문화와 옷 색갈



오 금순

우리 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옷이 그 사람의 인품과 정서, 문화 소양 정도를 직접 나타내 준다는 말이라고도 하겠다.

옷이 가지는 이런 의의는 옷의 형태와 더불어 그 색갈과 무늬에도 크게 관련되여 있다.

같은 천이라도 색갈과 무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쉽사리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화려하고 우아한 의복 단장과 깨끗하고 소박한 의복 단장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색에 있어서는 맑고 선명한 자연색들을 즐겨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인민의 깨끗하고 고결한 정신 세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우리 인민은 무늬에 있어서도 잡다한 색갈로 된 굵직굵직한 무늬의 배렬보다는 갑사나 문향라, 모범단이나 양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일한 색갈의 자름자름한 무늬를 좋아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알뜰하고 순결한 내면 세계를 그 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전통은 오늘 우리 로동당 시대에 와서 더욱 꽃피고 있다.

새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나라에서 생활을 창조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은 옷차림도 훌륭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의 옷차림을 문명한 나라의 문명한 사람답게 더욱 발전시키며 그 색갈과 무늬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세련시켜 입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자기의 옷차림과 몸 단장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옷에서 형태가 그 륜곽선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색갈과 무늬는 옷의 효과를 직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색은 크게 나누어 원색과 간색이 있다.

원색은 어떤 다른 색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 색으로서 빨간색, 노란색, 청색이 있다.

간색은 두 가지 이상되는 색갈로 이루어진 색갈을 말한다.

원색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안겨 오며 시각에 인차 피로를 준다면 간색은 비교적 순하고 부드러운 감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색을 대할 때 따뜻하다든가 시원하다든가 하는 말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매개 색마다 사람들에게 각이한 색갈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색갈들은 색감에 의해서도 찬색 (시원한 색)과 더운 색 (따뜻한 색)으로 나눈다.

찬색에는 시원한 감을 주는 하늘색, 옥색, 남색, 공작색 등이 있으며 더운 색에는 따뜻한 감을 주는 붉은색, 노란색, 등색, 밤색, 주홍색, 귤색 등이 있다.

우리는 매개 색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과 색갈을 잘 고려하여 옷을 해 입어야 한다.

그런데 옷차림의 형태와 색갈은 구체적으로 성별과 성격, 년령, 체구, 계절과 장소, 얼굴색, 취미, 기호 등에 따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색갈을 년령에 맞추어 입는 문제는 옷차림에서 문화성을 높이는 초보적인 요구이다.

가장 정결하고 위생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갓난 애기들의 옷 색갈은 주로 흰색, 미색, 옥색, 연분홍색 등이 좋으며 학령 전 어린이 옷의 색갈은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색이나 원색에 가까운 밝은 색갈이 좋다. 그러나 사고력이 일정하게 발전하는 소년기 즉 인민 학교와 초중 학생들의 옷 색갈은 원색과 함께 간색도 좋다. 약동하는 현실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은 명랑하고 화려하며 약동적인 색갈들이 좋다.

그리고 중년기에 들어 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 색갈은 품위 있고 침착감이 있어 보이는 색갈들이라야 한다.

옷의 색갈은 년령과 함께 계절에 따라서도 반드시 어울려야 한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덥고 침침한 감을 주는 검은 색을 입는다든가 서늘한 가을철에 추운 감을 주는 흰옷을 입는다면 매우 어색해 보인다.

봄에는 움이 트고 꽃이 피는 희망찬 이런 계절감을 담아 녀성들은 미색, 연분홍색, 연두색, 연록색, 진달래색, 보라색, 도라지색 등의 색갈이 좋으며 여름에는 태양 광선이 덜 스며 들고 많이 반사해 버리는 색갈로써 시원한 하늘을 련상시키는 찬색 계통인 하늘색, 옥색, 남색, 공작색 등이 좋다. 그러나 옷감에 따라서 은초사나 항라와 같이 발이 성근 천들은 여러 가지 짙은 색갈로 해 입어도 여름 계절에 어울린다.

그리고 가을에는 락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계절감을 담아 포근한 느낌을 주는 더운 색 계통의 아늑하고 짙은 색들인 붉은색, 자주색, 감색, 밤색, 갈색, 수박색들과 회색 계통이 좋으며 겨울에는 이보다 더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태양 광선을 더 많이 흡수하는 짙은 색갈이 좋다.

이 모든 색갈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즐겨 온 색들이다.

옷에 있어서 색갈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늬이다.

무늬에는 대체로 크고 작은 것, 복잡하고 단순한 것,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것, 또한 그 무늬의 색과 색 배합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무늬들도 역시 입는 사람의 체구와 년령, 기호와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달리 선택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치마 감은 직물폭 그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늬가 큰 것도 좋으나 저고리 감에는 비교적 자름자름한 무늬가 있는 것이 좋다.

옷차림에서 문화성을 높이자면 색과 색, 색과 무늬의 조화 관계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색들은 서로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이 있다. 잘 어울리는 색들로써는 같은 색 계통에 속하는 것들과 같은 색 계통이 아니고 서로가 대비적인 색갈이면서도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색갈의 조화는 대체로 한쪽이 화려하고 진하면 한쪽은 은근하고 연한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례를 들어 우에는 연한 색, 아래에는 그보다 더 진한 색을 하면 소박하고도 안전한 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위를 한결 높여 준다.

또한 아래우를 같은 색으로도 해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같은 색의 옷은 커 보이게 함으로 비교적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더욱 좋다.

이와 같이 옷차림과 색갈 선택은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해 줌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자연히 돌려지게 된다.

그러나 간혹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자기의 옷차림과 몸 단장에 관심을 덜 돌리는 동무들이 있으며 옷의 형태와 색갈을 자기의 년령과 몸에 어울리지 않게 선택하는 동무들도 있다. 화려하고 명랑한 색갈과 가볍고 활동적인 의복을 선택해야 할 처녀들이 자기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무겁고 침침한 감을 주는 검은 색이나 회색, 갈색 등으로 단조롭게 옷을 해 입고 다니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청년들의 감정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원색갈의 천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현대적 미감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며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젊은 부부 간의 례의 도덕

우리의 청년 남녀들이 백년 가약을 맺고 부단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있어서나 사회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새로 가정 생활을 시작한 젊은 부부들은 마땅히 그들이 맺은 아름다운 약속 대로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깊은 애정을 보전하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부부 간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조하면서 그들 간에 례의 도덕을 잘 지킬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부부 간이 아무리 가깝고 허물 없은 사이라 하더라도 례절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감정이 상하고 뜻하지 않은 오해도 일으켜 가정의 화목에 지장을 주게 된다.

부부 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서로의 사랑과 존경에 기초해야 한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 가노라면 부부 간에 서로 마음 괴로운 일과 말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 간에는 이럴 때마다 자기를 억제할 줄 알아야 하며 관대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호상 평등과 진정한 사랑, 동지적 협조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우리 사회의 부부 간의 례절은 어느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란 반드시 대응적인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남편을 열렬히 사랑하는 안해는 반드시 남편으로부터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남편의 안해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남편의 경우

부부 간의 례절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안해와 가정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남편은 우선 안해를 다정한 벗으로, 진정한 동지로 대하여야 한다. 안해를 덮어 놓고 깔보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으로써 배격하여야 한다. 남편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였을 때 안해에 대하여 품었던 불같은 사랑과 모든 유쾌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 그 추억에 녹이 쓸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안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의 일을 성심 성의 도와 주어야 한다. 안해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힘껏 방조하며 그가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풀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안해의 건강에 대하여서도 항상 배려하며 특히 임신기 같은 때에는 더욱 세심하게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모든 일을 안해에게만 맡기고 무관심한 일이 없어야 하며 성의껏 도와야 할 것이다. 안해보다 먼저 퇴근하였을 때에는 방도 깨끗이 정돈하며 안해가 들어 오면 쉽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 준다면 안해인들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미더웁겠는가. 아침이면 안해를 도와서 아이들이 탁아소에 갈 준비도 맡아하며 아이가 두서넛 되는 경우에는 안해와 함께 어린것들의 손목을 잡고 출근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남편된 사람은 명절이나 일요일이면 온 식구가 즐겁게 지내며 휴식할 데 대하여 먼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생활비를 쓸 때에도 그것을 안해에게 맡기고 쓰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안해에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남편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남편은 가정에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힘쓰며 가정에서 엉킨 문제가 있다면 제때에 풀어야 한다. 직장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하여 그냥 불쾌한 얼굴로 집에 들어 간다면 가정의 분위기는 흐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때면 남편은 몇 배나 속으로 근심할 안해를 생각해서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가야 하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불쾌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안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안해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하리라. 직장에서는 사업을 토론할 때 가장 열렬하면서도 집에 돌아 와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킨다면 이 이상 따분한 일이 어데 있겠는가?

요컨대 남편은 안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존경으로서 도와 주고 이끌어 주는 미더웁고 아량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안해의 경우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자면 안해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 있어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남편을 존경하며 그의 모든 요구와 지향에 성의 있고 세심하게 대하는 것을 노예적 굴종이라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무원칙하게 《평등》만 주장함으로써 가정 생활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사회주의 도덕과는 아무러한 공통성도 없는 태도이다.

남편의 사업을 백방으로 방조하며 가정이 그의 피로를 풀고 원기를 회복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만들기에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응당한 태도라 할 것이다.

남편의 출근을 원만하게 보장하여 그가 하루의 일을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저녁에는 그를 즐겁게 맞아 들여 하루의 피곤이 풀리도록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례절에서 초보적인 문제일 것이다. 만일 아침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하루 일의 시작부터 초조하고 바쁜 생각으로 일하게 만들며 밤 늦게 돌아 와 벗어 놓은 양복이나 구두도 그냥 내버려 두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구겨진 대로 입고 흙탕이 묻은 대로 신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어찌 안해로서 마음 편할 수 있겠는가. 저녁에 돌아 올 때도 매일 같이 되풀이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나가서 맞으며 손에 든 물건을 받아 주는 것이 마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밤 늦게 돌아 와도 먼저 자리에 누워 좀체 깨지도 않으며 오히려 늦게 오는 것이 귀찮다는듯이 얼굴을 찌프리고 짜증까지 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편이 돌아 올 때가 되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히 그의 거처를 잘 정돈하는 마음씨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녀성들이 직장에 다니는 조건에서 모든 안해들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점에까지 남편을 공대하고 세심히 보살피려는 관심과 태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녀성들은 남편에 대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요구성을 높이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편을 괴롭히는 행동이며 나아가서는 남편으로 하여금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게끔 만드는 경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삼가해야 할 것이다.

안해는 남편의 건강에 대하여 세심하게 돌보아야 한다. 남편의 구미에 맞게 료리를 잘 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정성껏 간호하여 속히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해는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을 보면 그의 안해를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편의 옷차림은 안해의 일솜씨와 인품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안해는 가정 살림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며 특히 자기 집에 찾아 온 손님에 대하여 언제나 례절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손님으로 하여금 조금도 불안감이나 어색감을 느끼지 않고 기꺼이 놀다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안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조하면서 부부 간의 례의 도덕을 잘 지킨다면 부부 간의 애정은 날을 따라 더 깊어지고 가정의 행복도 더욱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이다.

임진록



김상훈

《임진록》은 지난 시기 우리 인민들의 집체적인 창작으로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였으며 또 수 많은 사람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고무 격려한 소설이다.

임진 조국 전쟁(1592~1598) 때 일본 사무라이들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침략하였고 놈들의 야수적 만행은 얼마나 혹심하였으며 당시 우리 나라 조정은 얼마나 무능력하였고 사대주의자들과 당파 싸움쟁이들의 피해는 얼마나 컸으며 성스러운 구국 항전에 일어 선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 더구나 반일 의병 부대들의 투쟁은 얼마나 간고하였으며 또 애국적이였는가를 이 소설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임진록》은 우리 민족의 수난의 력사임과 동시에 유구한 전통과 신성한 국토를 지켜 불'길과 같이 일어 서 싸운 이 나라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산 화폭이다.

소설의 전반적인 구성은 력사적인 사실에 립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라렬이나 서술은 결코 아니다. 인민적인 집체 창작에서만 볼 수 있는 자유 분망한 허구와 환상을 통하여 인민 대중들의 투지와 꿈과 생활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임진록》 안에는 비과학적이며 력사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당시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었으며 또 그런 기적적인 사실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덕령 장군이 천병 만마의 적진 속을 이웃집 드나들 듯 하면서 온갖 풍운 조화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장면이라든지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 가서 천지를 뒤흔드는 도술로써 일본왕의 항복을 받는 장면 같은 것은 당시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이 표현된 것이다.

《임진록》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다고 볼수 있다.

그 첫 부분은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여 우리 나라 지배층들이 무능한 탓으로 국토가 짓밟히고 인민들이 혹심한 수난을 받는 것이 묘사되여 있다.

둘째 부분에는 각지에서 인민 의병 부대가 일어 서고 애국 지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전개되며 한편 우리 나라를 돕기 위한 명나라 군대가 도착되여 전국이 결정적인 반격으로 넘어 가는 것이 묘사되여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일본의 재침공과 리 순신 장군에 의한 그 격퇴, 그리고 전쟁을 승리한 다음의 전후 처리 문제가 묘사되여 있는바 애국적인 승려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 가서 적들의 항복을 받는 것으로써 소설은 끝을 맺았다.

《임진록》에는 많은 이본들이 있다. 여러 이본들 사이에는 그 내용과 사상 예술성의 일정한 차이들이 있고 지어는 주인공들도 서로 다르며 사건 전개도 전연 다른 것들이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어느 한 작가에 의하여 씌여지지 않고 인민들 사이에 광범히 전파된 이야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년대에 따라 또 서술한 사람의 계급적 처지와 사고 체계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유는 리조 봉건 시기에는 량반 사대부들에 의하여 인민의 문학인 이 소설이 극도로 천대를 받아 왔으며 일제 통치 시기에는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불온 서적이라고 하여 그 전파가 엄금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임진록》은 갖은 박해를 받으면서 억눌리고 천대 받는 인민들의 입에서 귀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류를 이루어 흘러 내려 왔다.

오늘 우리 로동당 시대에 이르러 날로 장성 강화되는 인민들의 힘과 함께 이 소설도 본격적으로 수집 정리되고 있으며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어 광범한 근로자들 속에 애독되고 있다.

일부 독자들의 요구에 수응하여 어려운 옛말로 되여 있는 이 책을 평이한 오늘의 말로 옮겨 놓으면서 광범한 이본들을 참고로 하고, 력사적 사실과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동떨어진 부분들을 생략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보충도 하고 해설도 하여 뜻과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한다.

이 현대역이 여러 청년들의 애국심을 기르고 외래 침략자들을 미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필자)

☆

1

우리 조선 땅의 강원도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여기에 신선이 산다고 일컬어 왔었다.

이 금강산의 산맥 한 가지가 통천에 이르러 총석정 둘레의 아름다운 바위들을 이루고 거기서 산맥은 바다 쪽으로 들어 동남쪽으로 삼천 리를 뻗어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였으니 일본이란 우리 나라의 아득히 먼 곁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 중국의 욕심 많은 왕인 진 시황이 《불사약》을 구해 보겠다고 서 시라는 신하를 시켜 신선의 나라를 찾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딴 배'장을 가진 서·시는 오백 명씩의 처녀 총각을 배 안에 싣고 동해 바다로 끝없이 떠 가다가 마침내 일본이라는 섬에 이르러 거기서 왕 노릇을 하며 살게 되였다.

그 후부터 그것들이 점점 번성하여 우리 나라를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백제 때에도 일본 침략자들이 쳐 들어 와 석 휘라는 장수를 시켜 그 놈들을 막았으며 그 후에도 놈들은 자주 우리의 해변의 마을들을 몹시 괴롭혔다.

리조 때 들어 와서 놈들의 침략은 더 심했다. 세종 때에는 서해를 침범하였으며 명종 때에는 남해 일대를 괴롭혀 전라도 바다'가의 백성들이 여러 차례 놈들의 성화를 받아 왔다.

진실로 일본 침략자들은 예로부터 우리들과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는 흉악 무도한 원쑤였다.

일본 땅에는 악귀와도 같이 흉악한 놈이 하나 태여났다. 성은 평가요, 이름은 수길인데 이 평 수길이란 놈이 제 나라 본토의 60여 고을을 다 통합하고 여러 섬 나라들을 다 쳐서 항복을 받고 이름이 온 나라 안에 떨치게 되자 제가 천하에 제일인듯 교만해져서 일본왕을 내쫓고 자칭해서 황제가 되였다.

때는 우리 나라의 리조 선조왕 시절이니 수백 년 동안 별로 큰 난리를 겪지 않고 안온하게 지나 오면서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부화 타락하고 벼슬이나 티'속에 눈이 어두워 정사를 돌아 보지 않았다. 더구나 군인을 무시하고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외적을 막아 낼 무력을 통 길러 내지 않았으니 병영은 거의 말 뿐이요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장수들은 싸움에 어두웠다.

이런 형편으로써야 불시에 큰 사변을 당하면 나라 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 안에는 여러 가지 불길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영주 고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마르고 동해의 물'고기들이 서해로 옮겨 가고 연평도 부근의 청어가 료동으로 몰켜 가고 평양성 안에 범이 들어 와 사람을 해치고 서울에서 7일간이나 검은 구름이 자욱히 덮이였고 한강 물이 피'빛이 되여 사흘 동안이나 끓었다.

백성들은 모두 불안에 쌓여 나라의 앞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벼슬아치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큰 난리가 날 것을 어슴푸레 예감하였다.

예조 좌랑 벼슬을 하는 조 헌이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 나라에 큰 변화가 있을 듯 하오니 전하께서는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무기를 수집하고 군사들을 훈련케 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아뢰였다.

그러나 판서 윤 홍이라는 자는 조 헌의 의견을 반대하여 《이런 태평 세월에 요망한 말로 민심을 소란케 하오니 국법으로 저 자를 벌을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왕도 간사한 윤 흥의 말을 옳게 여겨 조 형을 갑산으로 귀양살이를 보내여 버렸다. 그러니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 있어도 나라 일에 대한 걱정인들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랴…

한편 일본에서는 평 수길의 흉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내 어찌 이 바다 속의 조그만 섬나라만 지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 살리요. 한 번 위세를 떨쳐 온 천하의 강산을 무릎 밑에 두고 으뜸 가는 임금이 되여 보리라》 하고 떠벌렸다. 그리고 여러 무사들을 모아 의논을 하되

《내 이제 큰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치고 중국 명나라를 쳐 천하를 취하고저 하니 여러 장수들은 각각 생각하는 바를 말하라.》

이 때 한 장수가 자리에서 일어 서 말하되

《조선은 례의 도덕이 높은 나라이요, 또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사오니 군사를 일으켜 치기 전에 먼저 피 있고 용감한 자들을 골라서 조선 땅에 들여 보내여 산천의 형세와 국력의 강하고 약함을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청 백례라는 자라, 수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히 술'잔을 잡고 좌우를 돌아 보며

《그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조선에 들어 가서 형세를 살펴 오려나?》 하였다.

수길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여덟 명의 장수가 일시에 일어 서 자원을 하는데 평 오요, 평 조신, 평 조강, 안 국사, 석 강정, 평 의지, 정 감, 평 수장이였다.

여덟 명의 장수를 바라 보고 수길이 크게 기뻐하여 손수 술'잔을 부어 주며

《장군들은 힘을 다하여 조선의 실정을 알아오라. 만일 조선을 이기면 큰 벼슬을 주리라.》 하였다.

그리고 각각 돈 천 량씩을 주어 조선으로 떠나 보내였다.

여덟 놈의 일본 장수가 곧 배를 타고 조선에 잠입하여 부산 부근에서 제각기 변복을 하여 혹은 중도 되고 혹은 가난한 선비 차림도 하였는데 제각기 한 도씩을 맡아 조선 팔도에 흩어지면서 삼년 동안 조선 사정을 렴탐하여 부산 포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선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일백 관리들은 벼슬'자리만 다투고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의 위태로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볼 념을 내지 않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랴!

일본 침략자들의 밀정이 우리 강토를 쥐새끼처럼 기여 다니니 조국의 산천도 분노에 떨어 경기도 죽산 땅에서는 여울'가의 바위가 제대로 일어 서고 통진 땅에서는 누웠던 나무가 일어 서고 황해도 장수산에서는 차홀씩



이나 련달아 《난리 난다》는 웨침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고 식견이 있는 자들은 미리 피난을 하기도 하였다.

일본 침략자 밀정 여덟 놈이 조선 팔도를 모조리 밟아서 나라 안의 형편과 전투 요새들을 낱낱이 다 알아 낸 다음 일본에 들어가서 수길이에게 보고를 하고 조선의 지도까지 그려 바치니 수길이 너무도 기뻐서 각각 후히 상을 주었다.

그리고 곧 조선 정부의 태도를 알아 볼 생각으로 넌지시 조선에 시비를 거는 사신을 보내 보기로 하였다.

이런 사명을 띠고 나온 사신이 평 의지였다.

이 때는 기축년 오월이였다. 평 의지가 수길의 글을 조선 왕에게 올리니 그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이웃 나라라, 그런데 우리 사신은 매양 조선으로 가되 조선 사신은 안 오니 이는 우리를 업수히 여김이라. 또한 우리 일본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저 하나 조선이 길을 막으니 종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먼저 조선에 큰 불'집이 미칠 것이라, 조선은 일본을 거역지 말라.》

이같이 불손한 수길의 글을 보고 조선 왕이 크게 근심하여 백관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하니 대신들이 모두 아뢰되

《일본에 사신을 보내여 화친을 하는 것이 마땅할가 하나이다.》

왕이 이 의견을 좇아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정사로는 황 윤길, 부사로는 김 성일, 서장관으로 허 성을 정하였다.

경인년 춘삼월에 우리 사신들이 부산에서 배'길을 떠나 일본에 들어 가니 수길이 우리 나라에서 보낸 글월을 보고

《조선 왕이 직접 들어 와 내게 사과를 하고 일본 사신이 중국에 들어 가는 길을 허락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큰 불'집이 미치리라.》

하고 사신들을 하두 푸대접을 하여 겨우 탁주 석 잔을 내여 놓았다.

그 뿐만 아니라 수길이 조선 국왕에게 써 보낸 회답은 그 글이 거만하고 망칙하기 짝이 없였다.

그 이듬해인 신묘년에는 일본 장수 평 의지가 다시 부산에 배를 대이고 큰 소리로 웨치기를

《조선이 일본 사신을 인도하여 압록강을 건너 중국 북경까지 들어 가게 하면 다행으로 피차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의 화의가 장차 끊어지리라.》 하였다. 그리고 회보하기를 기다려 십여 일을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아무런 회답이 없으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서 수길에게 고해 바쳤다.

평 의지의 말을 듣고 수길이도 성이 치받쳐서 곧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군사를 일으킬 것을 의논하였다.

그 때 현 책이라는 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제 조선을 치고 중국까지를 치려고 하시면 먼저 장수 네 사람을 보내여 바다를 건너 부산 부근에 이르러 두 장수는 륙지로 들어가 전라, 경상, 충청 세 도를 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조선 왕이 반드시 평안도로 피하여 갈 터이니 남은 두 장수는 수로로 배를 이끌고 올라 가 황해도 장산곶을 지나 각처에 군사를 상륙시키고 군사 한 부대는 압록강으로 보내여 중국으로 통하는 길을 막으면 중국에게 구원병을 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 군사들이 앞뒤에서 무찌르면 조선 왕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요. 서울을 차지하고 평안도를 점령하여서는 조선 군사를 북쪽으로 내몰아 료동 땅을 얻은 다음 일본 군사가 중국을 엄습하면 천하를 차지하시기가 손'바닥 뒤집듯 아주 쉬울 것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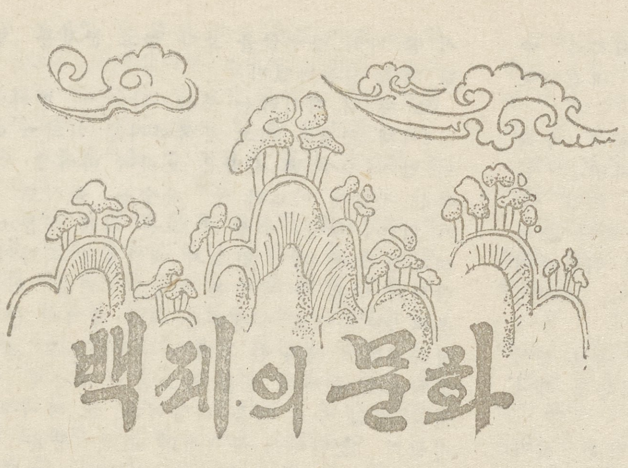
수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여러 섬나라에서 군사를 더 모아 백만 대병을 만든 다음 대장 평 행장, 청 정 두 사람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각각 삼십만씩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먼저 부산을 치고 륙지로 들어 가 삼남 땅을 쳐 앗으면 조선 왕이 반드시 평양으로 갈 것이니 한 부대는 서울에 웅거하고 한 부대는 조선 왕을 뒤쫓아 수군과 힘을 합치도록 하라.》

그 다음으로 마다시, 심안도 두 장수를 불러 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각각 삼십만씩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 서해로 향하여 장산곶을 지나 바로 압록강을 막으면 조선 왕이 다시 갈 곳이 없을 터이니 그 때 남으로 향하여 청정, 평 행장과 함께 앞뒤에서 치면 조선 왕이 가운데서 잡힐지라 삼가 령을 어기지 말라.》

그리고 네 장수에게 각각 그들을 도울 만한 부하 열 여덟 명씩을 배속시키니 모두가 대병력을 이끌고 일시에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났다.



백제의 문화

김 병 건

백제는 우리 나라 서남 지방에서 기원 1 세기 중엽에 형성된 나라로서 생산력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었다. 백제는 비교적 사회가 안정되고 군력이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 문화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대외 관계도 활발하였다.

백제의 문화는 건국의 문화를 계승하고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창적인 발전을 해 왔다. 특히 6 세기 후반기부터 7 세기 중엽에 걸치는 시기는 백제의 문화 발전이 완숙기에 처하여 있었던 시기로써 특징 지어진다.

이와 같이 발전하여 온 백제의 문화는 당나라 침략자들의 파괴와 략탈로 인하여 오늘날 그 진모를 전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백제 문화의 호화 찬란함은 우리 나라에 일부 남아 있는 유적들과 일본에 있는 백제 계통 이주민들이 전수한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의 유산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백제의 조각 유물로서 오늘까지 충청 남도 서산군에 남아 있는 자연석에 조각된 보살상은 조형적 처리에 있어서 탁월한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미소를 띈 부드럽고 풍만한 얼굴에는 조형의 탁월한 솜씨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 오면서 고요히 움직이는듯 한 선의 률동은 마치도 산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듯 한 감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자연석의 주어진 조건과 야외 광선 조건을 세심히 타산한 높은 예술적 기교를 보여 주고 있으며 백제 조각의 특성들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여에 있는 정림사 5층탑은 그 형태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탑은 목조를 모방한 초기의 석탑으로서 높이가 약 10 메터나 된다. 탑의 네 귀에 돌 기둥을 세웠으나 돌로 만들었다는 무거운 감을 조금도 느낄 수 없으며 마치도 목재를 잘 다듬어 세운듯 한 경쾌한 감과 안전한 감을 주는 뛰여난 작품으로써 백제 석조 미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백제의 조각 유물들은 고구려의 조각 유물들과 기본적으로 그 수법과 양식을 같이 하는 일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와는 다른 보다 부드럽고 세련된 일련의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드럽고 풍만하고 상쾌한 것— 이것은 백제 문화의 특징의 하나이다.

백제 문화의 특징들과 탁월한 예술적 기교들은 일본에 많이 남아 있는 작품들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일본 나라 (奈良) 법륭사 (法隆寺) 에 있는 백제 관음보살상 (百濟 觀音菩薩像) 은 백제 조각으로서 이는 7 세기 백제가 도달한 극히 높은 조각 수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요한 속에 선의 률동이 굽이치며 우아 섬세하면서도 또한 숭고한 감을 주는 이 목조 불상은 세계 미술사 상에서 하나의 빛나는 금자탑으로 되고 있다.

또한 높이 2.33 메터나 되는 목조 공예품인 옥충주자 (玉虫厨子) 역시 백제의 미술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는 귀중한 유물로서 법륭사에 보존되여 있다.

백제의 공예는 목조나 석조만이 아니라 금속 공예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는 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백제 기술자들의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

일본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에 있는 로사나불(盧舍那佛) 대동상(大銅像)은 662년 일본으로 건너 간 덕솔 국골부(德率 國骨富)라는 사람의 손자 공마려(公麻呂)가 743년에 착공하여 757년에 완성하였는데 이 불상은 현재까지 일본의 국보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온갖 기술과 재능을 다 발휘하여 오랜 시일을 걸쳐 이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높은 금속 주조 기술은 곧 당시 일본에 전수되여 일본 주조 기술 발전에도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늘 세계적인 걸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본의 성덕 태자상(聖德 太子像)도 역시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아좌 태자(阿佐太子— 백제 위덕왕의 태자)가 602년에 일본에 건너 가서 그린 것이다. 성덕 태자상은 《태자》를 중심으로 세 인물을 그렸는데 그 섬세한 선묘의 필치와 담백한 색채, 인물 특성의 포착과 높은 형상화 등은 당시 백제의 초상화 분야에서 달성한 비범한 수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463년에 건너 간 백제의 화가 인사라아(因斯羅我)는 일본 회화의 시조로 되였으며 백제 사람의 후손 하성(河成)은 9 세기 초에 일본에서 으뜸 가는 화가로 명성을 떨치였다.

당시 백제는 실로 일본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그 토대를 닦아 주었다.

285년에 백제의 학자 왕인 (王仁)이 일본으로 건너 가서 론어(論語) 천자문 등을 전습하여 유교 발전과 과학 문화의 시초를 이룩하여 놓았으며 554년에는 왕 보손(王 保孫)이, 602년에는 관륵(觀勒)이 일본에 가서 천문 관측 방법과 력법을 전수하여 일본 천문학 발전의 길을 개척하여 놓았다. 588년에는 건축 기술자 태량미(太良未) 등이 일본으로 가서 건축 기술을 전습하였는바 최근 시기까지 원상 그대로 남아 있었던 법륭사도 이들이 건설한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552년에 백제 성왕이 소형의 금동석가여래상과 불경을 보내 준 것은 일본에 불교 문화가 들어 간 시초로 되였다. 이 때로부터 일본은 약 1 세기에 걸쳐 백제를 비롯한 3 국의 문화를 섭취하여 이른바 비조(飛鳥) 시대를 이루어 놓았고 이는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의 계기로 되였던 것이다.

577년에는 조불공(부처를 주조하는 기술자), 조사공(절'간을 건축하는 기술자)들을 파견하였으며, 588년에는 로반 박사(탑 우에 장식하는 금속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와 박사(벽돌 공예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 사공(寺工), 화공(화가) 등이 건너 갔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6 세기에 벌써 백제는 고도로 발전된 문화 행정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미술 분야도 극히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일류급의 기술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리만큼 상당한 수의 기술자 대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백제는 조형 예술과 미술 문화 발전만이 아니라 천문 기상학도 높은 수준에 있었다. 《삼국 사기》에 의하면 백제에는 일관(日官)이라고 부르는 전문적인 기상 관측 일'군들이 있었다. 그들에 의하여 일식, 월식, 혜성, 류성, 지진, 서리, 우박 등 천문 기상 현상이 세밀하게 관측되였으며 1 년을 365.2467 일로, 한 달을 29.53 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과 대단히 근사한 것이다.

특히 농업이 일찌부터 발전되고 논 농사가 광범히 보급되면서 관개 수리 사업(그 중에서도 저수지의 뚝을 쌓는 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전개된 것과 관련하여 력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의학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백제 사람들의 의학 상 경험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의서로서 《백제 신집방》이 편찬되여 광범히 리용되였다. 《신집방》은 오늘 그 단편이 몇 개 인용된 것이 남아 있을 뿐이나 조선 약초의 특성과 효능에 립각한 독자성이 풍부한 의서였다.

또한 백제에서도 일정한 부서를 두고 력사 편술 사업이 진행되였다. 5경 박사(五經博士)와 같은 관직이 있은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류사한 교육 시설과 체계들이 있었다고 생각

된다. 《3국 사기》에 의하면 375년에 박사 고흥(高興)에 의하여 《서기(書記)》라는 력사 기록이 편술되였다.

백제에서는 사회 경제 발전과 자연 과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유물론적 철학 조류의 하나인 음양 오행 사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상의 유물론적 측면은 농민의 리익을 대변하면서 봉건 귀족들의 종교적 및 관념론적 사상 조류들인 유교, 불교 등 종교적 측면과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자연 과학의 기초로도 되였다.

4 세기에는 유교 교육 제도가 완비되였고 고 흥, 왕 인 등 저명한 유학 박사들이 나왔다.

백제에서는 문학, 음악, 무용도 발전하였다. 서사 산문 문학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력사 기록, 외교적 서한문, 정론적 산문 등이 있었다.

서사 문학과 함께 백제에서는 구전 문학의 중요한 한 종류로서 설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서동과 선화 공주》이다.

이 설화에는 백제 인민들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행복한 생활을 념원하는 아름다운 공상이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구현되여 있어 우리 나라 고대 설화 걸작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

백제의 탈춤은 중국,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쳤다. 612년에는 백제 사람 미 마지(味麻之)가 탈춤과 그 탈인 기악면을 일본에 소개하여 그것이 일본의 기악무의 시초로 되였다.

당시 백제의 기악무도 해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탈에는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 전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청년생활 소사전

물 속에서 하는 용접

굵기가 10 분의 1 밀리 정도 되는 머리카락 같은 도선을 용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최근 물 속에서 이렇게 가는 도선을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접해야 할 가는 도선들을 물 속에 넣고 음극 전원에 련결한다. 그리고 한 옆에 양극으로 철판 조각을 세운다. 여기에 전기를 통과시키면 음극 주위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데 수소 가스는 도선(음극) 주위를 둘러싸서 열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도선은 식지 못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열되며 결과 떨어졌던 부분이 녹아서 서로 달라붙는다. 이렇게 용접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전기 분해 용접》이라고도 한다.

《산소 취입법》은 왜 좋은가?

우리가 강선에 가면 용해공들이 전기로 속에서 펄펄 끓는 쇠'물에 산소 취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왜 산소를 취입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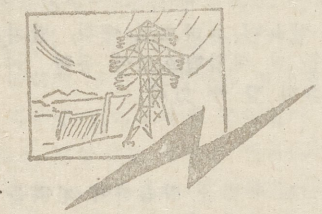
산소는 쇠'물 속에 들어 있는 탄소, 린, 규소, 망간 등 불순물과 매우 빨리 작용하면서 그것들을 산화시킨다. 이 때에 발생하는 다량의 열은 또한 쇠'물의 온도를 더욱 높여 주어 쇠'물의 산화 과정을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를 세게 불어 넣으면 로 속의 쇠'물이 저어지면서 쇠'물 속에 들어 있던 불순물들이 빨리 제거된다. 그리하여 용해공들이 힘 들여 로에 산화제로서 철광석을 따로 집어 넣거나 불순물이 빨리 없어지도록 쇠'물을 저어 주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강철 속에 불필요한 질소의 함유량이 적어져 강철의 질도 제고되며 열 손실도 적어진다.

전기로 제강에 산소를 불어 넣는다면 강철 한 톤을 생산하는데 광석은 60kg, 무산 철광(분광)은 70kg, 전력은 200kw 서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제강 시간은 1 시간~1 시간 반 앞당길 수 있다.

결국 로의 생산성을 15~20% 높이면서도 전력 소비 기준을 15~20% 낮출 수 있다.

전기와 우리 생활



전력의 생산과 공급

리 규 섭

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에 리용하는 동력 자원으로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조수력, 풍력, 태양 광선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동력 자원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 부른다.

수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는 물의 힘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수력 발전소에서의 전력 생산은 언제나 수로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흘러 내리게 한 물의 힘으로 수차 《원동기》를 돌리고 이 수차가 돌아 가면서 축에 련결된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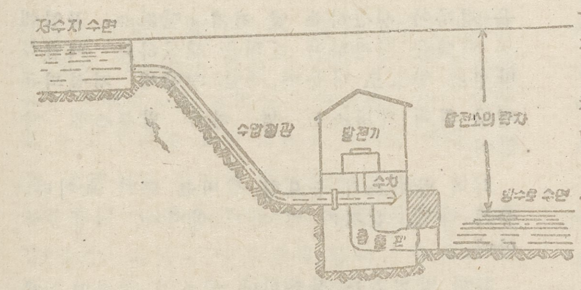


그림 1. 수력 발전소의 원리

$1m^3$의 물이 1 초 동안에 1m의 높이에서 떨어질 때 내는 힘은 약 13.3 마력(9.81 KW) 정도인데 이것은 물이 떨어지는 높이(락차)가 높을수록 또 단위 시간에 흘러 내리는 물의 량(류량)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낼 수 있는 리론 상의 능력(수력)은 락차와 류량을 승한 것과 같다.

즉 출력(KW)=9.81×류량(m^3/초)×락차(m)×발전소의 효률(%)

따라서 수력 발전소에서의 전력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될수록 높은 락차를 조성하며 단위 시간에 흐르는 물의 량을 많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유리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는 수력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유리한 지점이 아주 많은바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등 우리 나라 64 개의 큰 하천들에서만 하여도 약 800만 KW의 값싼 전력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력은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력 발전소는 락차를 어떤 방법으로 조성시키는가에 따라서 언제식, 수로식 및 언제 수로식 발전소로 나눈다.

언제식 발전소—강에 언제를 건설하여 락차를 조성하는 발전소이다. 언제식 발전소는 언제의 높이를 지나치게 높일 수 없으므로 비교적 락차가 낮으며 대체로 류량이 많은 강에 건설한다. 우리 나라의 수풍 발전소와 독로강 발전소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수로식 발전소—발전소의 전체 락차가 긴 수로에 의하여 조성된 발전소이다.

이 발전소의 언제는 비교적 적다. 이 언제는 강으로부터 물을 돌리기 쉽게 하기 위한 역할만 하며 락차는 조성하지 않는다. 수로식 발전소에서 락차를 조성하는 방법은 바로 높은 지대의 논에 개울을 막고 물을 대는 방법과 꼭 같다. 즉 하천의 제일 좁은 목을 크지 않은 언제로 건너 막고 여기서부터 수로를 건설하여 일정한 장소까지 가서 본래 하천이나 린접한 하천에 물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수로는 그 경사가 하천의 경사보다 완만하기 때문에 락차가 생기는 것이다. 수로식 발전소는 하천의 경사가 급할수록 높은 락차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수로식 발전소의 례로써는

우리 나라의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부령 금강산 발전소 등을 들 수 있다.

언제 수로식 발전소—발전소의 락차를 언제와 수로에 의하여 얻도록 한 발전소이다.

이런 발전소는 하천 상류부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하류의 경사가 급한 곳에 건설되는데 언제식 발전소와 수로식 발전소의 우점을 다 리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언제 수로식 발전소로서는 운봉 발전소를 들 수 있다.

수력 발전소의 주요 설비로써는 수력 설비, 수력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이다. 언제, 도수로 등 수력 설비는 발전소 고정 재산의 약 45%나 차지한다.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 설비는 수차이다. 수차는 발전소의 락차와 그 규모에 따라 각이한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의 동작 원리에 따라 충동식(펠톤 수차)과 반동식(후란시스, 프로펠라, 카프란 수차)으로 나눈다. 락차가 200 m 이상되는 고락차 발전소에서는 펠톤 수차를 주로 사용하며 수풍 발전소를 비롯해서 장진, 부전, 허천 등의 1호 발전소를 제외한 락차가 그리 높지 않으면서 류량이 풍부한 발전소들에서는 후란시스 수차를 가장 많이 쓴다. 락차가 30m 미만인 중소형 발전소들에서는 카프란 수차와 프로펠라 수차가 많이 쓰인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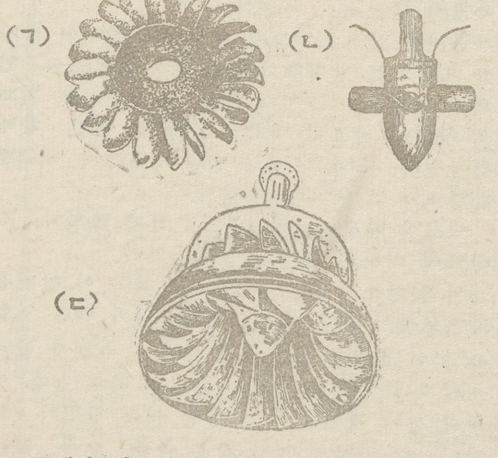


그림 2. 수차
ㄱ. 펠톤 수차, ㄴ. 카프란 수차.
ㄷ. 후란시스 수차.

이외 전기 설비로서는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등이 있다.

수력 발전소는 그 전력 생산 원가가 낮고 (화력 발전소의 $\frac{1}{10}$) 설비가 단순하여 운영하기 쉬운(운영비는 화력 발전소의 $\frac{1}{15}$) 때 유리성을 가지지만 반면에 건설 기간이 오래고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결함이 있다. (화력 발전소의 2 배) 또 전력 생산에서 계절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수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잘 배합함으로써 동력 기지를 질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다.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는 화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다. 화력 발전소에서는 연료(석탄, 중유, 가스 등)를 연소시켜 얻는 열 에네르기로 증기를 생산하고 그 증기의 힘으로 타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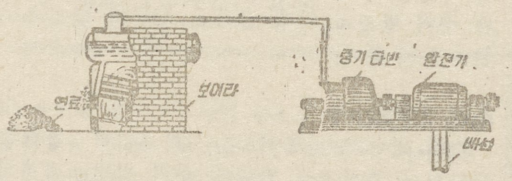


그림 3. 화력 발전소의 원리.

화력 발전소는 열 에네르기의 리용 방식에 따라 전력 생산을 기본으로하는 복수식 발전소, 도시 난방용 및 산업용 열 에네르기와 전력을 겸하여 생산하는 열 전기 발전소, 공업에서 폐열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폐열식 발전소 등으로 나눈다. 지금 평양에 건설되는 평양 화력 발전소는 열 전기 발전소에 속한다.

화력 발전소의 중요한 설비는 증기 보이라, 증기 타빈, 발전기 및 전기 설비와 건물 등이다.

화력 발전소는 석탄이나 중유만 있으면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갈수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수력 발전소의 경우보다 건설비도 적게 들고 짧은 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동력 기지를 공고히 하며 증대되는 전력의 수요를 최단 기간 내에 급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인민 경제 각 부문과 인민 생활에 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비지까지 보내야 한다.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수송하며 개별적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송배전이라고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압을 높여 가지고 고압 송전선을 통하여 전력 소비자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된 대용량 변전소까지 공급된다. 변전소에서는 이것을 변압기로 전압을 적당히 낮추어 개별적 전력 소비자들에게 분배한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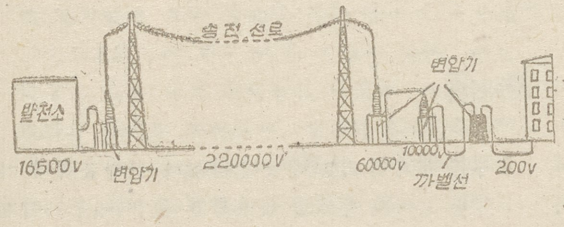


그림 4. 전력의 공급 순서.

전력을 먼 거리에 보낼 때 전압을 높이는 리유는 전 호에서 설명하였다. 전압을 높인다고 하여 전압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는바 지나치게 전압을 높이면 그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지지물과 전기 기구를 써야 하므로 기술 경제적으로 도리여 불리하게 된다. 때문에 송전 거리와 송전 전력의 크기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전압을 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쓰는 표준 전압은 송전압(발전소에서 소비 중심에 있는 1 차 및 2 차 변전소까지에 보낼 때의 전압)이 220, 154, 110, 66, 22 KV이며 배전압(2 차 및 3 차 변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압)은 10, 6, 3 KV와 380, 220, 110V이다. 100KV 급 이상은 전력을 먼 곳에 보낼 때 60, 20 KV는 발전소 및 변전소에서 지방의 전력 소비지나 큰 공장 지구에 공급하는 데 리용되며 3, 6, 10 KV는 큰 공장 기업소에 배전할 때에 그리고 110, 220, 380V는 작은 기업소나 일반 주택들에 배전하는 데 리용된다.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기본 수단으로 되는 것은 송배전 선로이다. 송배전 선로에는 전선을 공중에 가설한 가공 선로와 까벨선을 리용하여 지하에 가설한 지중 선로 두 가지가 있다. 선로는 주로 전선, 지지물(전주), 애자 및 피뢰선 등으로 이루어진다.

변전소는 송배전망의 주요 설비의 하나이다.

변전소는 전압을 높이는 승압 변전소(주로 발전소의 옥외 변전소)와 전압을 낮추는 강압 변전소로 구분한다.

변전소는 또한 그의 규모와 전력 계통에서 노는 역할에 따라 1 차, 2 차, 3 차(말단) 변전소 및 특수 변전소로 나눈다. 1 차 변전소란 발전소에서 보내 온 전력을 받아 2 차 변전소 또는 중요 공장에 공급하는 변전소이며 2 차 변전소는 1 차 변전소에서 보내 온 전력을 도시와 농촌 및 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이다. 3 차 변전소란 비교적 전력을 적게 쓰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공장 기업소들의 변전소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 외에 특수 변전소란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변전소를 말한다.

전력 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된 전압과 규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사고 없이 부단히 공급하는 것이다. 규정된 전압과 주파수가 보장될 때에야 전기 설비들과 기계들은 자기의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리고 정전과 같은 사고는 인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세계지식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



가 나

강 계 덕

가나는 서 아프리카의 가네아만에 면하고 상아 해안, 상부 볼타 및 토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가나의 면적은 23만 8천 평방 키로메터이며 인구는 700여만이고 수도 아크라에는 근 40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가나의 기후는 열대성이여서 전국에 무성한 산림이 우거져 있다. 이 나라에는 금, 금강석, 망간, 보키사이드와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가나는 금 생산에 있어서 세계 제 5 위를, 금강석과 망간 생산에서는 세계 제 3 위를, 보키사이드 생산에서는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로서는 코코아, 커피, 기름,종려, 목재, 야자 열매, 바나나 및 고무가 풍부하다. 특히 푸른 황금으로 불리는 코코아는 가나 수출 총액의 약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국 주민의 5 분의 2가 코코아에 의거하여 생활하고 있다.

가나는 5 세기 중엽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여 이 지역에서 황금을 략탈한 때로부터 구식민주의자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게 되였다. 17 세기에는 화란과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기여 들어 황금과 상아를 대대적으로 략탈해 갔으며 노예 매매를 시작하였다. 가나는 19 세기 중엽에 마침내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재부를 무제한으로 략탈해 갔으며 인민들에게 가혹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금광을 비롯한 지하 자원을 몽땅 틀어 쥐고 략탈해 가는 한편 이 나라에 코코아 생산만을 강요하고 그로부터 거액의 리윤을 짜냈다. 례를 들면 1947년 《가나 코코아 판매주》는 아프리카 농민들로부터 코코아 한 톤에 67 파운드의 가격으로 사 가지고 177 파운드의 가격으로 미국 쵸코레트 제조업자들에게 팔았다. 이 나라에서 가나인 로동자들은 영국 로동자들의 20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임금을 받아 가지고 겨우 연명해 갔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 기간은 또한 가나 인민에게 있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기간이기도 하였다. 가나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식민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 나라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은 제 2 차 대전 후 더욱 앙양되였다.

1949년 6월 현 가나 대통령 느크루마와 기타 가나 인사들은 인민 대회당을 조직하고 대중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인민들의 반식민주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켰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수단으로써도 가나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7년 3월 6일 가나 인민은 영련방 내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간고한 투쟁으로 마침내 독립을 달성한 가나 인민은 1960년 4월의 국민 투표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을 달성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후 가나는 지난날의 식민지 통치의 쓰라린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나 정부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나라의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벗어 나는 방침에 따라 우선 국내에 있는 외국 회사들의 리권을 청산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의 《코코아 수매 회사》의 독점적인 수매권과 화란 독점체인 금강석 회사의 리권을 박탈하여 국가 기관에 이관하였으며 미국인 기업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금강석의 해외 류출을 통제하는 국가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광물 자원과 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코코아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매와 수출, 전력 생산, 철도 운수, 항만, 체신, 음료수 공급 및 기타 편의 시설들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또한 국가는 가나 은행을 설치하고 영국 파운드 대신에 가나 화폐를 발행하였다. 이 모든 조치들은 민족 경제의 건설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가나는 이미 1957~1958년의 《2 개년 계획》과 《5 개년 국가 발전 계획》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국가의 투자로 성냥 공장, 코코아 가공 공장, 과실 및 채소 가공 공장, 다이야 공장, 통졸임 공장, 고무신 공장, 유리 공장 등 수 많은 공장들이 일떠섰다.

농업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대국영 농장과 협동 조합들을 조직하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오늘 가나에는 100여 개의 국영 농장과 1천 450여 개의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있다. 농업의 기형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가나 정부는 코코아 이외에 벼 등 기타 다수확 작물 재배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코코아 연구 기관을 비롯하여 농업 연구 기관들을 창설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들에 물을 보내기 위하여 관개 공사를 진행하였다.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현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가 독립을 선포한 첫날부터 《협조》니, 《원조》니 하는 따위의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이 나라에 다시금 기여 들어 저들의 옛지위를 회복하여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가나 정부와 이러저러한 계약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가나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주구들과 암해 분자들을 사촉하여 느쿠루마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음모를 꾸몄으며 이것이 실패한 다음에는 반정부 구데타까지 일으키려고 책동하였다.

지금 가나 인민들은 《온갖 세력의 음모, 파괴 및 폭행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자는 느크루마 대통령의 호소를 받들고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평화 애호적 중립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이 투쟁에서 아프리카 대륙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나 공화국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친선 및 협조 관계도 부단히 발전 강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가나 간에 맺어진 친선의 뉴대도 나날이 공고화되고 있다.

(시)

의화리의 절구질 소리!

— 유격대를 원호한 절구 앞에서 —

정 룡 순

여기 수수한 초가집 이영 밑에
항일의 그 날 빨찌산을 원호한
손 때 젊은 절구 하나.

장백 밀영에 계신 그 이를 우러러
빨찌산 군량미 뿐 아닌
아낙네들의 붉은 마음도 담아 보내던 너
금시 우리 가슴에 그 절구질 소리 들려 오는듯…

너의 절구질 소리는 그랬다
별'빛 깜박이는 재'등을 넘어
조국 광복의 삐라를 품고
이웃 마을로 걸음 재우치던 마을 처녀의
뜨거운 가슴 깊이 쿵쿵
승리의 신심을 다져 주었다.

또 너의 소리는 그랬다
고콜'불 앞에 모여 앉은 비밀 아지트의
반일 회원들의 높뛰는 심장에
붉은 충성의 노래가 쿵쿵
높이 울리게 했다.

오오 절구질 소리
의화리 어머니들의 절구질 소리.

쿵쿵 힘차게 울리던 너의 소리는
유격 지구의 수 많은 아들들의
김 장군 유격대로 향한 발'길을 재촉했었다.
쿵쿵 가슴마다 울리며
이 나라 아들들의 잔등을 떠밀어 주었다.

너 오늘은 여기
의화리의 수수한 초가집 이영 밑에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다만

아, 온 조국 땅에 널리 울려 퍼지는 절구질 소리여
영원히 그칠 줄 모르는 절구질 소리여!
너는 오늘도 공산주의로 내닫는
우리의 잔등을 쿵쿵 힘 있게 떠밀어 주누나!

필자—평양시 수리 공학 연구소 사로청원임

청 년 생 활 제 10 호 (루계 80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1964년 10월 4일 발행 1964년 10월 9일

ㄱ—430538 값 45 전

오원(吾園) 장 승업(張承業)

(1843—1897)

자(字)는 경유(景猷) 이고 호(號) 는 오원(吾園)이라고 하였다. 오원 장 승업은 19 세기 후반기—리조 말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실주의 화가이다.

그는 강의한 의지를 가진 열렬한 애국자였으며 불타는 예술적 정열을 가진 천재적인 화가로서 우리 나라 사실주의 회화 발전에 큰 공적을 남기였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역경과 싸워가면서 그림 공부를 하여 풍경, 인물, 화조 등을 다 잘 그렸다. 그의 작품들은 활달하고 세련된 필치로 참신하고 놀랄만 한 기량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화폭들에서는 묘사의 진실성, 구도의 참신성, 부드러운 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색조, 풍부한 감정 등을 느끼게 된다.

그는 겸재 정 선, 단원 김 홍도 등의 사실주의 화폭을 계승 발전시킨 주옥 같은 작품을 수많이 남겨 놓았다.



《신선도》